아토피 · 건선 · 난치성피부질환전문
이든한의원
진료시간 오전 9:00~1:00 (점심시간 1:00~2:00) 오전 2:00~7:00 (토 · 공휴일 5시까지, 주말 휴진)
원장 송 창 수
경기고양시일산동구 장항동867번지 SK엠시티 드마레크2층 212호
TEL : 02)2264-8822 · 8833
FAX : 02)2264-8833

JTNTV.KR 지저스타임즈 신문

지저스타임즈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신학생 모집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주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부개역 2번 출구 송내역방향 200m)
대표전화:032)323-5552, Fax : 032)322-0099
H · P:010)2956-9191 야간:032)321-9109 E-mail : keyone209@hanmail.net

이사장 : 정기환 | 사장 : 소진우 | 발행 · 편집인 : 정기남 | 대표전화 : 032-672-3031
www.JTNTV.kr (인터넷 방송)
제59호 2012년 10월 28일 주일

제6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경찰의 고귀한 희생 국민의 벗 · 세상의 빛이 되다





경찰청은 2012년10월19일 10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기용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그리고 각계각층의 일반내빈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거행하였다.

이 자리에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성낙인 경찰위원장 구재태 경우회장 정상천.안응모.허준영 등 전직 치안총수들도 다수 참석하여 경찰의 날을 축하했다. 특히 순직경찰 유가족과 전국의 일선 경찰관들이 가족단위로 많이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뜻 깊게 하였다.

이번 제 6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는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 하에 안전한 치안강국을 위해 부단한 쇄신 노력을 기울이는 경찰의 모습을 부각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경찰이 될 것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연출되었다.

본 행사에 앞서 진행된 식전 프로그램으로는 아동 지문 사전등록 시스템 등 실종아동 찾기 프로그램이 시연되었고, 소설가 이외수씨와 가수 인순이 개그맨 용감한 녀석들 팀 등의 축하 메시지가 영상으로 전해졌으며 전국에서 선발된 모범경찰관(18명)과 순직유가족(6명)이 함께 이명박 대통령과 즐거운 담화를 나누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최근 다이하드 경찰관으로 유명해진 부산 연제경찰서 김현철 경사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프로파일러 강은경 경위가 이명박 대통령 좌우에 나란히 앉아서 행사를 치르는 파격적인 모습이 돋보였다. 특별한 순서로 마련된 신임경찰의 다짐글 낭독 순서에서는 임용된지 얼마 안 된 새내기 남녀경찰의 각오가 담긴 사연이 공감을 얻었다.

※ 부산청 순경 서영배('대를 이은 경찰의 길'), 서울청 순경 김선혜(손수건 같은 경찰 되기')

유공자 포상시에는 엊그제(10.16) 과로로 순직한 전주 덕진경찰서 故이상열 경위의 부인 나현애 씨가 남편을 대신해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하여 깊은 감동을 주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인사말에서 외부인사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의 시각과 현장의 관점에서 시스템.제도.행태 전반을 쇄신하고 있으며 잇따른 흉악범죄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소외계층의 안전을 살피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안전하고 평온한 국민들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한기총이 중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

한기총, 신임 교단장 단체장 및 총무 취임축하예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19일(금) 오전 11시 앰배서더 호텔(장충동 소재)에서 '2012 신임교단장, 단체장 및 총무 취임 감사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약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기총 소속 67개 교단의 신임 교단장과 총무, 16개 단체의 신임 단체장과 총무들이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로부터 취임 축하를 받았다. 행사장은 신임 임원들과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교계 관계자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인사말씀을 전한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사람은 편을 가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분의 계획 속에서 진행하신다"며"부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온다"고 했다. 또한"故 한경직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 등 신앙의 선배들은 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기총을 세우셨다. 이로 인해 한기총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며"그러나 소수의 몇 명 때문에 한국교회가 격랑 속에 빠졌다. 다시 한기총이 중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복 있는 지도자'(시편 1:1~2절)를 제목으로 설교한 조용기 목사는"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보잘 것 없는 나라였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성장을 이뤘다"며"이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지도자들과 국민들로 인해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는"많은 단체들이 서로 갈라지는 원인은 알고 보면 교만 때문"이라며"한기총은 절대 무너져선 안 된다. 故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만든 단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야 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완하면 된다. 그러나 무너뜨려선 결코 안 된다. 다른 단체를 만드는 것은 교만한 것"이라며"우리는 한기총을 보호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그 때 하나님께선 복을 주시고 한기총을 한국 보수신앙의 기수로서 국가와 민족 앞에 높이 세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3면에 이어서 ☞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사설

자신의 들보는 보는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 간에 논쟁거리가 많이 나온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인혁당 사건이니 유신이니 하며 많은 일들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문에 논쟁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당시 박 후보는 어린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다니며 나라의 일을 보아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해명하느라 곤욕을 치루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를 국가헌납 또는 이사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수장학회와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정수장학회는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이사진이 곧 주인이며, 이미 사회에 환원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으로서는 왈가왈부 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면 지금도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만일 이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을 들고 나올 것이다. 선거는 다가온다. 국민은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기다린다. 정수장학회가 우리나라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사회에 환원되었고 꼭 그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면 재판을 통하여서라도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정책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끓어야 할진데, 그렇다면 민주당의 문 후보는 전에 노무현 재단을 맡아 왔는데 노무현 재단은 언제 어떻게 하여 생겼으며 그 재단이 갖고 있는 재산과 그 한 일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자신들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를 보며 무슨 큰 발견이라도 한 듯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는 그만두고 한 마을이라도 올바로 다스릴 수 있겠는가?

민주화를 외치며 정치를 했다던 모 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은 한마디로 아마어마하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선거자금을 안 주었다고 수십조의 자산을 가진 대그룹을 하루아침에 누명을 씌워 몰수하기도 했다. 아마 그의 재산은 정수장학회의 수십 배도 넘으리라고 한다. 그 일에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가?

참으로 어려운 때 나라를 일으켜 보자고, 잘살아보자며 외치던 시절 우린 필리핀을 얼마나 부러워했으며, 북한의 수풍 발전소를 부러워할 만큼 빈약했었다. 그러나 그리도 민주화가 잘된 필리핀의 현재의 형편을 모르는 이는 없으리라, 그리고 종북사상자들은 그들이 그리도 흠모(?)하는 북한의 형편을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 정수장학회의 일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참으로 중요하다. 북한에는 겁 없는 젊은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며 이미 연평도, 천안함 사건을 통하여 체험하지 않았는가? 혹 종북사고를 갖고 있다든지 급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후보가 있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비겁하게 과거사를 붙잡고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인가? 과거사를 논하려면 고려 말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부터 논해야 할 것이며. 과거사를 논하려면 4,19가 어찌하여 일어났는가를 논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후보들은 한민족의 지도자로서 국가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면 더욱 크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후보들은 공약다운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얽매인 채 정쟁과 상대후보에 대한 흠잡기로만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내수경제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경제, 일본과의 독도문제 중국과 일본의 각축전 틈새에서 한국의 위상, 북한의 위협 어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현안이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며 선거에 임하여 뚜렷한 공약을 세우되 公約을 空約으로 하지 않는 진실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소진우 목사 2011년-2012년 성회일정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3391-9676(대)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1월
1/1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3~5 동탄사랑의교회(이주훈 목사)
7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9~15 신년특별축복성회(예복교회)
13 감리교단 제직세미나
16~19 성마을교회(권동희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4~7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011년 2월
31~4 캄보디아 선교대성회
6 효창중앙교회(최복태 목사)
7~9 솔산반석교회(김형진 목사)
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4~17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20 한강중앙교회(최창규 목사)
21~23 미수교회(전웅구 목사)
24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7~3/2 원당소망교회(김영호 목사)

2011년 3월
봄철축복대심방
7~10 성석교회(편재영 목사)
13~16 월계성도교회(김봉하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8~31 온누리교회(조민환 목사)

2011년 4월
4~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7~9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0~12 정기노회
12~14 장선교회(이광규 목사)
1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8~20 내곡교회(함형민 목사)
25~27 신갈장로교회(이광수 목사)

2011년 5월
2~4 서울서지방여전도연합성회
9~12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6~18 동대천교회(홍무열 목사)
24~25 남양주기독교연합성회(회장 이정근 목사)
31~6.3 선교지방문(노회선교위원회)

2011년 6월
6~8 소망큰교회(이용찬 목사)
13~17 선교지 방문
17(금) 갈멜산기도원 (임예제 원장)
20~22 생명나무교회(성낙근 목사)
26~7.2 심야특별기도대성회

2011년 7월
4~6 새영교회(이영근 목사)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1~15 신학생여름특별세미나
18~21 소망기도원(연인애 원장)
23 갈멜산기도원 (임예제 원장)
25~27 원주벧엘교회(김경호 목사)

2011년 8월
1~4 금산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5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8~11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5~18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2~25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3 오산리 금식기도원
29~9/1 도곡산기도원(양예자 원장)

2011년 9월
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5~9 온누리복음화협의회(엄기호 총재)
12~15 몽골 할렐루야 교회(전 용 목사)
18 성인교회(이현국 목사)
19~22 교단총회
24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6~28 성은교회(지동수 목사)

2011년 10월
2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3~5 양주 비젼교회(김학현 목사)
10~12 진건 퇴계원기독교연합성회(박건익 회장)
13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7~19 은천교회(허세동 목사)
23~26 성신교회(손양도 목사)
27 오산리 금식기도원
28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3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31~11/2 광능래교회(김상용 목사)

2011년 11월
3 베데스다기도원 (허영혜 원장)
7~9 반석교회(이종현 목사)
14~16 주안성결교회(진영학 목사)
17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21~24 주님의교회(김연경 목사)
2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8~30 서광교회(김창수 목사)

2011년 12월
5~7 성광교회(유인덕 목사)
8 성산수양관(윤호균 목사)
12~16 인도 선교 집회
19~22 소망영성원(연인애 원장)
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6~28 반석중앙교회(이명구 목사)

2012년 1월
2-4 천성교회(김영목사)
6 오산리금식기도원(조희연원장)
9-11 온사랑교회(최태식목사)
13 한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신성교회(정대호)
19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2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3-26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9 예제교회(류준모목사)
30-1/2 흰돌교회(송우종목사)

2012년 2월
6-9 감림산기도원(이옥란원장)
12 예수소망교회(신동식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3-15 신갈장로교회(이광수목사)
16 성산수양관(윤호균목사)
19-22 평강교회(박성주목사)
27-29 증평평강교회(고영철목사)

2012년 3월
축복대심방
5-7 수원교회(강성우 목사)
18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2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012년 4월
2-4 하예성교회(강대종목사)
5-6 성소기도원(박정연원장)
9-10 정기노회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6-18 동탄제자들교회(이석원목사)
23-25 주사랑교회(김주환목사)
27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012년 5월
3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7-9 우리교회좋은교회(이평찬목사)
13-16 성신교회(손양도 목사)
21-24 광음교회(김동기목사)

2012년 6월
3-6 주찬양교회(윤병구목사)
7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목사)
12-14 베데스다교회(허영혜목사)
17-30 2주연속심야대성회(예복교회)

2012년 7월
2-5 사명자영성원(송요섭원장)
8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9-10 신학생여름세미나
23-26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2012년 8월
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8-10 한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1-16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0-23 감림산기도원(이옥란원장)
27-30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012년 9월
2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3-5 주우리교회 (이황규목사)
10-12 새암교회(김병식목사)
17-20 교 단 총 회
24-26 일신제일교회 (천창대목사)
30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012년 10월
8-10 신일교회(정병수목사)
12 한얼산기도원 (이영금원장)
15-16 정기노회
19 성소기도원(박정연원장)
22-25 진리교회(송대규목사)
26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8 천보산기도원(유택진목사)
29-31 검단지역기독교연합성회(회장·한신현목사)

2012년 11월
3 주향기교회(김홍수목사)
5-9 선교지방문
11-14 동서울교회(라계동목사)
19-21 경천교회(이원경목사)
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6-28 예수비전교회(이승엽목사)

2012년 12월
2-7 부흥성회(예복교회)
10-15 필리핀선교대회
17-19 예원교회(한규식목사)
23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한기총, WCC는 적그리스도 이단으로 규정

통합교단은 이단연류, 종교다원주의 옹호교단으로 규정 결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는 19일(금) 오전 10시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제23-11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인사말을 전한 후, 서기 남태섭 목사의 회원점명 결과 82명 중 37명 참석에 16명이 위임하면서 성수가 되었다.

개회선언, 전 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 이후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총무협의회의 건은 총무협의회 신임회장으로 황규철 목사(예장합동)가 선출되었음을 보고하고 황규철 목사가 임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실사위원회의 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동행총회(총회장 김의웅 목사 : 교회수 208개), (사)해외문화교류협회(이사장 정해송 목사)의 가입을 허락하기로 가결하고, 실행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신학위원회의 건은 '한기총 신학원 설립의 건'은 연구해서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하였고, '교회법 강좌 개설의 건'은 보고대로 진행하기로 가결됐다.

이단옹호 단체 및 교단 규정의 건은 '한국교회연합'은 이단옹호 · 연루 · 친 이단 단체로 규정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은 이단연루 · 친종교다원주의 교단 · 종교다원주의 옹호 교단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WCC(세계교회협의회)'는 적그리스도 · 사단 · 이단으로 규정하고, WCC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은 친 WCC 옹호단체로 규정했다.

그러나 WCC 2013 총회 상임위원장 김삼환 목사에 대해서는 이미 직위 사임의 사를 밝혔기에 경고 처분하기로 하고 이단옹호자 규정을 유보했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이 같은 결의 배경에 대해 "한기총과 예장합동이 이단으로 규정한 최삼경 씨를 한교연이 이대위(바른신앙수호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친 이단적 행위를 하고, 이단옹호 규정을 남발하는 등 한국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건은 본회 정관에 근거하여 회원교단/단체 총대가 이대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으로 총대가 아닌 김만규 목사, 나용화 목사, 유장춘 목사, 윤덕남 목사를 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 이대위 위원조직은 대표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했다.

회원교단 행정보류 및 탈퇴 처리의 건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교회교역자협의회(총회장 최제봉 목사)는 행정보류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총회장 손달익 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명혁 목사)는 탈퇴처리하기로 가결했다.

이 밖에 로뎀 선교회 배식지원의 건은 본회 회원교단(년1회)별 매주 2회(목요일, 주일) 노숙자 500명에게 배식지원하기로 가결했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신임교단장 · 총무 취임감사예배

"더불어 일어나라!' 너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못할게 없다"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묵 목사, 이하 한지협)가 5일 오전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2012년 신임 교단장 총무 취임 감사예배'를 개최했다. 이날 예배에는 한지협 소속 50개 교단, 단체 신임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신묵 목사는 인사말에서 아름다운 열매의 계절에 금년 각 교단 총회에서 소중한 총회장 및 총무의 사명을 받으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교단의 성장과 발전은 물론이고 영적으로 병들고 침체된 한국교회에 영적 개혁의 운동을 일으켜 주실 줄 믿는다고 전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거대하지만 내면 적으로 볼 때 많은 문제점과 부끄러운 상처 투성이어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고 꺼저가는 등대가 되었다며 18세기 영국의 정치 부패와 사회적 혼란이 거듭하면서 종교마저 타락하여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 요한 웨슬레는 혜성같이 등장하여 도시와 산간을 순회하면서 꺼져가는 영국을 재건하는데 심혈을 기우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작금의 나라와 교계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일과 위선의 자리에서 일어나 상실한 도덕성과 양심을 외복하고 요한 웨슬레와 같이 오늘의 병들고 침체된 한국교회 개혁운동을 각 교단장을 중심으로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으로 무장하여 재기의 나팔을 불며 7전8기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한국교회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는 36년의 역사를 가진 연합기관으로 현재 50개 교단 및 지도자들로 구성되어있다. 1975년 7월 1일 한경직 목사 외 목회자 13명과 18개 교단의 총회장 및 총무, 평신도 지도인사 110명이 영락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역대 대표회장으로는 장성 철, 강신명, 유호준, 오경린, 지원상, 최혜일, 현 신신묵 목사이다.

설립목적은 월남이 공산화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움직임을 보여 국가안보가 불안할 때 국가수호와 한국교회 사수를 위해 설립되었다.

이날 예배에는 신목사의 사회로 김재권 목사의 기도, 오관석 목사의 말씀에 이어 특별기도순으로 '신임 교단장, 총무를 위하여', '나라의 안정과 12월 대선을 위하여', '한국교회의 개혁과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사와 축사, 그리고 방지일 목사(통합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순서를 마쳤다.

한편 이날 한지협은 미국남가주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김사무엘 목사)와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다. 한지협은 월남 공산화와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이 있던 당시 국가와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돼, 36년의 역사를 가진 연합기관이다.



예장(웨신) 대한노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 유임

회의록서기 박명자 목사 선출 임원전원 재임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대한노회 제9회 정기노회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소재 승리교회(오상렬 목사)에서 10월 8일 오전 11시 개최되어 장한국 목사(주사랑교회)를 노회장으로 추대되어, 만장일치 유임됐다.

서기 박민규 목사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회의록서기 박명자 목사가 기도를 하고, 이숙희 목사가 성경 창15:7절을 봉독했다. 이어 회계 유윤주 목사의 특별찬양이 있었으며,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히브리인"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장 노회장은"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깨닫게 하시며, 이것을 소망하며 이를 믿고 아멘하여 이 복에 참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귀한 종들을 세우시고 저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노회장소를 제공하는 승리교회와 동참하는 모든 종들에게도 히브리인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한다면서 축복을 기원"한 후, 이어 JTNTV 및 지저스타임즈 정기남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부노회장 오상렬 목사(승리교회)의 집례로 성찬예식에서 분병위원 분장위원에 이진경 목사, 이순재 장로가 집례를 맡았다.

대한노회 제9회 임원은 노회장 장한국 목사(주사랑교회), 부노회장 오상렬 목사(승리교회), 서기 반민규 목사(백호샬롬교회), (신임)회의록서기 박명자 목사(생명수교회), 회계 유윤주 목사(지구촌교회) 등이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사장: 정기환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정기남목사

전국 21개 지사 / 해외 25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10 대운빌라 1층 제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생 모집



학장 정 기 환 목사(DEdThD)

지망생에게 드리는 글

현대는 새로운 세기와 급격한 변화의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대변혁의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웨신총회 직영신학교로서 ▲ 개혁신앙에 입각한 학문의 정통성을 학립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 영적 혼란의 시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성경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 세상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6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심도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각종 장학제도는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를 향한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사명감이 충만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장약력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사단법인 기독학술원 이사장 ◈세계원주민 선교회 회장 ◈글로벌 평생 교육원 원장 ◈국제기독교지도협회 총재 ◈전원중앙교회 담임목사 ◈저서 성경개론 외 다수

설립목적 본교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성에 입각한 초교파 신학교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계선교와 목회사역 및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참신한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①입학원서(본교양식)1통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여권사진 3매 ⑤편입생은 성적증명서 1통 추가

전형안내 · 전형기간 : 12월 ~ 2월(봄학기), 6월~8월(가을학기)
· 전형방법: 서류전형 / 신앙면접

특전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남,여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성적 우수자 및 신앙심이 투철한 자에게 각종 장학금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전도사, 선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우수한 학생은 해외연계대학 및 신학원에 편입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학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막1:17)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8)

과정	학과	기간	자격	비고
학부	신학과	8 학기	고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목회자 및 연구과정
	선교학과			선교사 준비
	상담학과			각계에서의 상담활동
	무용학과	6 학기	중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댄싱워십 선교 및 다양한 활동
	통신과정	별도 상담에 의하여 과정 및 학기를 결정함		
대학원부	상기의 전학과	M.Div.6학기 기타 4학기	학부 과정을 필한 자	목사안수 및 지속적 학문연구
학술원	해당학과	4~6학기	면접 및 심사 후 해당 학위 가능한 자	권위 있는 해외 신학교와 연계하여 과정을 이수함.
편입생	각 학 과	1~3년	타 신학교 중퇴 또는 이수자 혹은 통신과정 후 편입가능	편목과정은 별도로 있음

이번학기 교수진

정기환교수(조직신학) : (D.R.E., Th.D)延世大學校 敎育大學院
(美)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장광용교수(고대근동학) : (Ph.D)(濠)University of Sydney
(英)University of London
이현우교수(이스라엘역사)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美)Columbia University
권맹철교수(변증학)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정철성교수(구약신학) : (Th.D)(獨)Ruhr-Universit?t Bochum
임칠환교수(교회정치) : (Ph.D)(美) School of Bible Seminary
최병관교수(비교종교학) : (Th.D)(美) Life University
박광보교수(주교교육) : (D.D)(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종철교수(목회상담학) : (Th.D)長老會神大學校大學院
박종혜교수(가정상담학) : (D.C.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우금 교수(MBTI) : (Ph.D)이화여자 대학교, 피어선신학 대학원 대학교
박상국교수(교회음악) : (D.S.M)(伊)Lucio Campiani 國立音樂院
안병삼교수(교회행정) : (Th.D)(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화순교수(선교학) : (D.D)(美)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정현모교수(선교언어) : (中)中國南京大學校,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Charles McVety(교회사):(D.Lit)(蘇)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John Wesley Tobey(히브리어) : (Th.D)(加)University of Toronto
Rondo Thomas(조직신학) : (D-CP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정통신학의 요람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웨스트민스터신학교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부개역 2번출구 송내역 방향 200m 지점 대평프라자 5층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오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 H · P : 010-2956-9191 야간 : 032)321-9109
● E-mail : Keyone209@hanmail.net

소강석 목사, '2012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제6회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미주한인재단(KAFUSA)에서 수여





재외동포 권익 신장과 한미우호 증진에 앞장서온 소강석 목사(蘇康錫,50세)가 제6회 세계한인의 날(10.5)을 맞이하여 280만 재미동포들의 구심체인 미주한인재단(KAFUSA 전국총회장 박상원)이 수여하는 '2012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소강석 목사의"2012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식"은 지난 10월 7일(주일)오후 3시 새에덴교회 프라미스홀에서"세계한인의 날 기념예배 및 축하음악회"가 진행되어, 미주한인재단 박상원 총회장을 비롯하여 20여명의 해외 한인 대표들과 각계 인사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미주한인재단이 수여하는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은 그동안 김덕룡 前 대통령 특보와 김영진 前 국회의원이 수상하였으며, 금번 세 번째 수상자로 정치인이 아닌 민간인이면서 목회자인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선정되어 한층 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소강석 목사는 미주 한인의 날과 세계 한인의 날 제정을 위한 입법 및 서명운동 전개와 다양한 재외동포 지원사업과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2007년부터는 민간 종교단체 최초로 '한국전 참전 미군용사 초청행사'를 기획하여 금년까지 6회째 진행되어 왔다.

이날 수상을 안은 소강석 목사는"재외동포들을 위한 일이나 민간외교 차원에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한 것은 그 일이 부족한 저와 새에덴교회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요, 애국적 소명이며, 보은과 감사와 섬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아직까지 진행형이요 꽃씨를 뿌리는 단계일 뿐인데 이렇게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되어 송구스런 마음과 함께 역사와 민족과 사회를 더 잘 섬겨야겠다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수상소감을 밝히면서"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재외동포들을 더 사랑하고 그분들의 화합과 위상 강화를 위해 저와 새에덴교회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짐했다.

남다른 역사의식과 소명감으로 국내·외 다양한 민간외교와 봉사 활동을 감당하여온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2007년에 미국 마틴루터킹재단에서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2011년 9월에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해외참전용사협회(VFW)에서 수여하는 '금훈장'을 받았다. 또한 10월에는 한미관계 발전과 미주지역 동포위상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우리 정부에서 수여하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서훈 받은 바 있다.

기하성 여의도측 제61차 제3회 정기실행회 개최



기하성여의도 총회(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15일 오후 파주 오산리 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에서 실행위원 87명중 70명이 참석 실행위원회를 열고 통대위에서 주요 정관개정 안건과 연합기관 관련 안건을 보고하고 처리하는 등 오는 화요일 오후 6시30분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동의하고 실행위를 마쳤다.

실행위 결과 연합기관 관련하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행정보류를 유지하고,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에 대해서는 가입을 유보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한편 기하성(여의도 측) 60주년 기념 체육대회를 마치고, 입시총회와 컨퍼런스도 열린다.

예장 정통총회 각 노회 정기노회 마쳐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 전국 12개 노회가 2012년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정기노회로 개회됨 속에 새롭게 임원선출이 되어 총회에 보고되었다. 예장정통총회 전국 12개 노회는 강원도 리조트에 모여 총회주간 연합으로 세미나를 갖는 등 행사를 가졌다. 이날 서울노회 노회장 양정섭 목사는 로마서 12:1-2를 봉독하고"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한 후 회무를 은혜롭게 마쳤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 전국 12개 노회 신임노회장은 다음과 같다.

서울노회장 양정섭 목사(유임), 중부노회장 임정태 목사(유임), 중앙노회장 이영춘 목사(유임), 동부노회장 이광복 목사(신임), 남서울노회장 김연숙 목사(신임), 서부노회 장 김인호 목사(신임), 남부노회장 양성국 목사(신임), 북부노회장 양정식 목사(신임), 수원노회장 이대용 목사(신임)등이 각각 선출되고, 또는 유임되었다. 아울러 미국 워싱턴노회장에 김경희 목사, LA노회장에 신현주 목사, 하와이 노회장에 이영희 목사가 각각 유임되었다. 예장 정통총회 총회장 양정섭 목사는 각 노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WCC의 반대운동에 적극 대처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자는 당부와 함께 총회발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보수교단의 영입을 원할 경우 우리와 신앙이 같은 칼빈주의 정통신앙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하고, 오는 11월에 있을 각 노회가 연합으로 모여 추수감사절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자는 결의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이다.

"엄마가 1% 바뀌면 아이는 100% 바뀐다"

한국청소년육성연맹대구지부 두뇌학자 홍양표박사 초청 특강



한국청소년육성연맹 대구 지부는 지난 25일 대구 신천동 소재한 동일교회에서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를 초청, 특강시간을 가졌는데"엄마가 1% 바뀌면 아이는 100% 바뀐다"며 120분 동안에 걸쳐 열강 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전도와 영혼구원을 위해서 세미나도 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해 보았지만, 교회에서 성공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고 기도해 본 나름대로의 결과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세상의 기대나 수준만큼 퀄러티가 우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세상의 전문가들만큼이나 전문적인 실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불신영혼(학부모)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이끌지 못해서였던 것 같다.

우리 교회들의 내부적인 어려움도 분명 작용했으리라 생각되고 인적자원이나 물적 자원 및 장소 등의 여건이 미흡하고 부족해서 좋은 결과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학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학부모들과 자녀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찾아왔다.

그 대안이 두뇌계발이다.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BGA(두뇌종합검사 프로그램) 교육 특징은 ①두뇌종합검사를 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전뇌적인 아이로 키운다. ②학부모와의 긴밀한 연계학습이 될 수 있도록 자녀교육위한 부모 역할이 무엇인지 안내한다. ③전국의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임상실험을 거친 교육방법이다

특별히 BGA검사 및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은 ①집중력이 약해 오래 앉아 있지 못하는 아이 ②글쓰기나 책읽기를 싫어하는 아이 ③TV와 컴퓨터에 빠져 있는 아이 ④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아이 ⑤책을 건성으로 읽고 읽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 ⑥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지고 학습의욕이 없는 아이들이다. 자녀들의 두뇌계발은, 이 시대의 모든 학부모들이 관심가지는 분야이다.

내 자녀의 좌우 뇌를 골고루 계발시키고, 우리 자녀의 두뇌 속에 잠들어있는 잠재능력을 끌어 올려서 영재로 만들고, 집중력을 향상시켜서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 거기다가 성격과 인성까지 치료받을 수 있다면, 내 자녀 잘 되길 바라는 학부모들이 당연히 특별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학부모 전도를 위해서 학생전도를 먼저 해야 하고, 학생전도를 위해서 교회에서 두뇌계발 훈련센터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두뇌계발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학생들의 두뇌가 계발되어지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성적이 올라가면, 학부모들은 당연히 목사님과 교회와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교회들이 두뇌계발 훈련센터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대구지사 박수영 기자

한기총이 중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

☞1면에 이어서

길자연 목사는 축사를 통해"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역사를 이끌게 하신다"며"신임 교단장들과 단체장, 총무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특히 한기총은 지난 2년 간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연단됐다. 함께 힘을 합쳐 한국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자"고 권면했다.

예배는 한기총 총무 최명우 목사의 사회로 이무영 목사(예장고려 증경총회장)의 대표기도, 박홍자 장로(공동회장)의 성경봉독,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의 인사말씀, 한기총 명예회장 조용기 목사의 설교, 길자연 목사(직전대표회장)·엄신형 목사(증경회장)·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의 축사, 오관석 목사(명예회장)·조경대 목사(명예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또한 특별기도에는 엄정묵 목사(공동회장)의"한국교회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김성광 목사(공동회장)의"대통령 선거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김영우 목사(WCC반대대책위원장)의"2013년 WCC 총회 개최 반대를 위하여",이병순 목사(공동회장)의"2014년 WEA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조갑문 목사(공동회장)의 "신임 교단장·단체장·총무를 위하여"가 있었다.

그리고 이승렬 목사(공동회장)의 신임 교단장, 단체장 및 총무 소개, 고흥식 목사(기침 총회장)의 대표 인사, 남태섭 목사(서기)의 광고, 이만신 목사(증경회장)의 축도, 하태초 장로(공동회장)의 오찬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추수감사절을 축하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온누리찬양교회

All Nations Praise Church



담임 임찬미 목사

초대합니다.

찬양과 말씀 축복성회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며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아 낙심될 때에 괴로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 임찬미 목사
장 로 : 최원영 선교사
전 도 사 : 전은혜 선교사, 함다니엘 선교사
조에스더 선교사, 황연아 선교사
전 도 사 : 정희선 선교사, 이부자 선교사
반 주 자 : 박시온 박시내 정은주



예·배·시·간
주일낮 예배 :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 주일 오전 9:00
주일저녁집회 : 주일 오후 7:30
청년부 예배 : 주일 오후 2:00
심야기도회 : 매일 오후 9:00
학생부 예배 : 주일 오전 9:00
축복성회 : 매주 금.토 저녁 9:00~
주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매주 주일 저녁 7:30~

찾아오시는 길



506-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773-3호

☎010-4932-7277 070-7443-7277

추수감사절을 축하합니다.

축 12주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황기로운교회

HYANGGIROUN CHURCH

표어 이 전의 더 큰 영광을 보리라(학2:7)

담임목사 정일량 유성은
(10월 20일(토) 담임목사 위임을 축하드립니다.)

섬기는 분들

전임전도사 : 이귀선(샤론) 전도사 : 헵시바
선교사 : 전승주, 손호자(태국치앙마이)
장로 : 최문호 . 유봉철
안수집사 : 손경현. 배하성, 정대봉
성가대장 : 정대봉
성가지휘 : 이용경
피아노 : 배민지 신디 : 김인영
드럼 : 유혜란 김효정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09:30
2부 찬양예배 오후 1:30 청년1,2팀예배 오전 09:30
사랑 애찬 교제의시간 주일학교예배 오전 09:30
수요기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목
영락원예배 오전 9:00 1일월삭 예배 오전 05:00
목요치유예배 오후 7:30 1기 제자교육 월화금요반

홈페이지 http://hgioun.onmam.com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2-1 황기로운빌딩 9층

☎ 032)814-7720, 팩스 032)714-3131 010)4274-3330

불교는 신이 없는 종교! 《불교인 전도 특별성회》(1)

신용주 목사(한밀교회 담임)



저는 예수를 빨리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33살 때 예수를 믿은 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어두움 속에서 우상숭배하면서 세상에서 방황했는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되었는데 이번에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습니다. 제게 어두웠던 과거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들어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복음인 것을 또 들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절에 가면 분위기가 참 좋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드디어 친구의 소개로 불교학생회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불교가 너무 좋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약30분 거리를 걸어서 마산 포교당에서 새벽 예불을 드리고 학교를 다닐 만큼 그렇게 심취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산 중고등 불교연합회 회장을 맡게 되면서 드디어 불교는 제 인생에 전부가 될 만큼 깊이 불교에 빠졌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불교학생회 들어가서 집에서는 날마다 목탁을 치고, 학교공부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공부 잘해서 출새한들 무어하겠느냐?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그래서 날마다 첫 시간만 수업을 하고 조계사에 가서 하루 종일 도를 닦는 것입니다. 참선수행, 불도를 닦아서 생과 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도를 닦아서 부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교 2학년 때 인도 요가에 정통한 도사어른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매일 저녁마다 옛날 화신백화점 1층 다방에 모여서 대학생들이 계속 요가를 공부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요가 수행을 하고, 특별히 명상 탄트라 요가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토요일만 되면 우이동에 있는 도승사에 들어가 밤새 철야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예수를 믿고 밤새 기도한 적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밤을 새워가며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수도를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탄트라, 명상, 초월명상, 마인드컨트롤, 당시 한참 유행했던 요가 쪽으로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요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100만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요가는 흔히 다이어트에 좋다는 것, 비만에 좋다, 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심리적인 안정이 있다는 것으로 지금 요가의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요가학교를 개원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요가를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요가의 뜻은"신과의 일치"입니다. 이는 힌두교에서 섬기는 악한 악령들과의 일치를 뜻하는 것이 요과입니다. 또한 하타 요가는 몸을 비비꼬아서 하는 육체요가인데,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믿는 인도의 신들을 섬기는 예배의식입니다.

그래서 하타 요가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악령의 영양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인도요가를 가르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도의 종교, 인도의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가를 조금만 더 깊이 하다보면 악령과의 접촉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인도 요가를 하다가 신비주위에 빠지고, 힌두교로 입문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선채널을 돌리면 힌두교 채널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고승들이 인도의 요가들이 공중부양을 하는데 즉 악령의 힘을 빌려 공중에 몸이 붕 뜨는 행위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도 신기해서 저도 공중부양을 배우려다가 못했습니다.

바로 이 힌두교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년 전에 순복음한밀교회에 어떤 남자가 귀신들려서 왔는데, 그의 어머니가 함께 온 것입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요가의 정통한 요가를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해서 콜택시로 모셔오고 강사료는 1시간 당 50만원을 주고 요가를 배울 만큼 요가의 도사였습니다. 그는 또한 차력술 ,무술, 카이로프라티, 침술 등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쿤다리니' 란 요가가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뱀 같은 기를 끌어 올리는 요가인데, 이걸 하면 귀신들립니다. 이 사람이 너무 깊이 요가를 하다가 귀신들려 찾아 온 것입니다. 그에게 귀신이 계속해서 자살하라, 죽으라고 해서 어느 날 목매달아 죽으려는 순간 어머니가 발견하여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받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은 순복음 목회대학원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가나 오늘의 정세, 별점, 점치는 것, 이것들은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벧전 5:11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대중문화라고 하는 탈을 쓰고 우리가운데 접근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깨어서 보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제가 바로 이 요가에 깊이 심취하여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며 겨울방학 때 불교의 승려의 생활이 어떠한가를 실지로 체험하기 위해서 경남 함양군 백제면 백운산 삼연대라는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던 고찰이 있는데 약 3시간 4시간 올라가야 도달하는 깊은 산속, 거기서 저는 4개월간을 머리를 밀고, 행자승을 했습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LG에 들어가 12년을 근무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여전히 불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도를 닦고 집에서 목탁을 치고, 후에 윤회설을 믿었습니다. 윤회설은 내가 죽어서 동물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김치에 젓갈만 넣어도 먹지를 않습니다. 젓갈이 혹 죽었던 할아버지로 생각이 들어서 먹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매일 우셨습니다. 동태찌개를 해놓아도 안 먹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또한 파나 부추도 안 먹습니다. 정욕을 돋군다고 해서...그랬던 제가 33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무신론, 근본적인 교리는 신은 없다.

영혼도 없다. 귀신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석가의 가르침이다.

한국미래포럼 기도회 및 신임 임원 추대식 개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도 가져



사)한국미래포럼(총재 장성만 목사,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제190회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및 신임 임원 추대식이 5일(금) 오전 11시 서울 종로 여전도회관 김마리아기념관에서 열렸다.

한국미래포럼은 2006년 6월 5일 11,631명의 목사, 장로, 권사에 의해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됐고, 그동안 국가 정체성 수호 및 바른 사회 만들기에 힘써 왔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 반대운동, 한미 FTA찬성집회, 평화통일 기도회, 사학법 재개정 촉구운동 등이 있다.

2부 신임 임원 추대식에서는 총 212명의 인사가 새 임원에 추대됐다. 신임 명예총재에는 계준혁 장로, 김형오 장로, 이연옥 장로, 주선애 교수, 후원회장에는 박준 장로가 추대됐다. 부총재에는 김요셉 목사, 서기행 목사, 김희원 장로, 서성옥 장로, 전성원 장로, 상임부이사장에는 김원래 장로, 공동상임회장에는 민경자 장로가 추대됐다. 부이사장에는 장로, 권사 47명, 부회장에는 장로, 권사 142명이 추대됐다.

한편 행사 순서는 <1부> 인도 윤종관 목사(예성 증경총회장), 기도 장은화 장로(전 한기총 공동회장), 성경봉독 최충하 목사(예장대신 전 총무), 설교 김홍도 목사, 헌금 최수용 장로(합동전국남전도회증경회장), 주제기도 김원래 장로(평단협 증경회장), 송원석 장로(한장총 증경회장), 김사철 장로(평지협 초대회장), 이명원 장로(공동회장), 축도 김홍도 목사, <2부> 인도 김춘규 장로(상임회장), 임원추대식, 축사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이용규 목사(한기총 증경회장), 류태영 장로(농촌청소년 미래재단), 광고 조성제 장로(사무총장), 오찬기도 엄문용 장로(전 미드웨스트대학 총장) 순으로 진행됐다.

웨신총회 웨신대에 장학금 전달

양측은 총회와 학교발전을 위해 실무적인 큰 뜻 이뤄!



예장웨신총회(총회장 이재갑 목사)는 지난 18일 제97회기 공식적인 일정 첫 행보로 웨신대학원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동숙 이사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웨신총회 총회장 이재갑 목사와 증경총회장 임칠환 목사, 회계 이영풍 목사, 총무 신언창 목사는 웨신대학원대학교를 방문하고, 한동숙 이사장, 총장직무대행 이호일 부총장, 기획처장 김성욱 교수, 웨민선교회 박우재 교수 등이 간담회를 갖고, 이재갑 총회장은 총회원들이 모은 성금을 한동숙 이사장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이날 총회와 학교 양측 관계자들은 학교와의 상호협력 발전을 도모하고 추진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동반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덕담과 실무적인 많은 얘기를 나누는 의기투합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어 열린 채플시간에는 한동숙 이사장과 교수진, 학생들, 총회 임원들이 자리를 같이하고 총회장 이재갑 목사의 설교를 통해 큰 은혜를 나누었다. 아울러 식당에서 교수들과 함께 중식을 마친 후, 학교 발전기금을 위한 바자회 행사장에 들러 재활용품등을 구입하고, 한동숙 이사장, 이호일 부총장, 교수들과 함께 티타임을 가진 다음 학교발전과 부흥 성장하는 총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뜻 깊은 일정을 마쳤다.

북, 전단 살포 금기를 깼다

노무현 이종석이 채운 대북심리전 중단 족쇄를 풀어 버릴 때

김대중 전대통령은 16대 총선을 3일 앞둔 2000년 4월 10일 박지원을 북경에 밀사로 파견하여 북 아태평화위원회(통일전선부)부부장 송호경과 남북정상회담개최를 합의했다고 전격발표 했다. 그로부터 우리군은 회담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서란 구실로 북한군이 괴로워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 했다.

그 후 6.15선언의 후속조치 격으로 이루어진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휴전선일대 스피커 방송 및 시각심리전 전광판 등 심리전 중단문제를 놓고 밀고 당기던 중, 당시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차장 이종석의 북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토록 하라는 훈령에 따라서 2004년 6월 4일 심리전중단에 합의를 했다.

노무현 정권 말기부터 탈북자 단체 등 소수 민간단체에 의해 대북 풍선 날리기가 간간히 있었으나 정부와 군 당국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등 계획적 무력도발 행위에도 불구하고 전방 심리전 방송 재개 유보는 물론 전단 살포를 자제해 왔다.

그런데 北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대남비방에 박차를 가하고 심리전 공세를 강화하면서, 지난 7월 21일~25일 파주와 양주지역에 밀입북 노수희와 탈북자출신 월북자 박인숙 관련전단지를 살포한데 이어 추석연휴 첫날인 9월 29일에는 국방부의 '종북 교육'을 비난하고 장준하 사진이 실린 선동전단을 살포 하였다.

이는 김정은이 남북 간 합의에 따른 전단 살포 중단이라는 금기를 스스로 깨고 대한민국 제 18대 대선에 적극 개입, 방해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군은 전단 살포를 재개함은 물론 이종석이 저지른 전방스피커방송 및 시각심리전 용 전광판 철거와 심리전부대 해체 등 반역적 조치를 원상태로 즉각 복원, 본격적으로 대북심리전재개에 나서야 한다.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대한예수교장로회
공덕교회

2012년 표어 :
성령의 은혜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행 6:7절)



담임 서명범 목사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교육전도사 : 김민호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밤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전화 : 041)853-9966 855-0691
홈피 코헬렛 http://lov153.cafe24.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담임 모상련 목사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 일	예 배	시 간	장 소
주 일	낮예배	1회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저녁예배	오후 7시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금요예배	저녁 9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청년부예배	오후 5시	5층 영산강홀
주 일	대학부예배	오후 5시	5층 두란노홀
주 일	유치부	1회 오전 9시 30분	2층 새롬방
		2회 오전 11시 30분	
주 일	유초등부	1회 오전 8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층 아동센터
		3회 오후 2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중등부	오전 9시	2층 영산강홀
	고등부	오전 11시	2층 영산강홀
	영어예배	오후 1시 30분	5층 두란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 (북항주택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곽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 예 배 안 내 >
주일오전 : 오전 11:00
주일오후 : 오후 2:00
수 요 일 : 오후 7:30
새벽기도 : 오전 6:0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논설위원)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김탁기 목사 2016년 세계 그리스도인대회 준비 총력

그리스도의교회 일치운동과 한국교회 내의 환원운동 확산 최선





그리스도의교회 협의회 제77회기 정기총회에서 새롭게 회장으로 선출된 김탁기 목사(수원그리스도의교회)는 임기동안에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일치와 연합운동 전개, 한국교회 내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환원운동의 확산에 앞장서 나갈 것을 밝혀 한국교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회장 김탁기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부족한 사람이 그리스도의교회 제77회기 회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지난 12년 동안의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의 상임총무와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그리스도의교회 일치운동과 연합운동에 노력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탁기 목사는 "이제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회장으로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서 교단 내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교단의 발전과 성장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주력해, 서로 섬기며 발전하는 그리스도의교회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면서, "먼저, 회장으로서 오는 2016년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그리스도인대회를 준비하는 일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 한국 내의 그리스도의교회 유악기, 무악기, 총회측 등 3개 교단이 협력을 통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화합과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탁기 목사는 "미국 세계그리스도인대회 본부를 세계 대회장인 이강평 목사와 함께 방문해서 2016년에 세계그리스도인대회를 통해서 세계 그리스도의교회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자리에 모여 미래교회를 위한 비전과 발전방안, 그리고 세계 교회를 위한 섬김의 사역을 모색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내에서 세계그리스도인대회를 위한 준비위원회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세계 그리스도인대회 홈페이지 관리를 시작으로 해서 오는 11월이나 12월 중으로 준비대회 발대식을 갖고 교단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일에 주력하고, 세계 그리스도의교회들과 정보 교류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김탁기 목사는 "작금의 한국교회는 리더십의 부재와 인물부재, 그리고 교단들 간의 대립과 갈등, 교계 지도자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대사회적인 위상이 추락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교회의 대사회적인 책무의 부족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과 빈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그리스동의교회 회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뼈저린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한국교회 내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환원운동의 확산과 활성화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영적 성숙의 바람을 일으키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이었다.

끝으로 김탁기 목사는 "앞으로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개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목회자들의 연합과 영적인 성숙을 위한 질적 성숙을 도모하는 일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면서, "한국교회 내에서 환원운동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교회협의가 될 수 있도록 교단 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늘 기도하며 함께 성장과 발전을 모색하고, 그리스도의교회 교단의 역량을 확산시키는 일에 주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기독뉴스 김성수기자

신천지,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최홍준 목사 명예훼손 고소

지난 2월 '이단 사이비와 전쟁 선포' 이후 첫 고발사건

최홍준 목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부산성시화운동본부장 최홍준 목사가 신천지측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지난 17일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신천지 안드레 지파로 추정되고 있는 고소인은 최근 부산성시화운동본부가 제작한 포스터와 예방카드에 '신천지를 반국가적 종교집단'으로 표현한 것을 문제 삼고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홍준 목사는 이번 조사에서 신천지로 인한 피해사례를 보도한 지상파 TV의 방송물을 비롯해 관련 자료와 신천지 피해가정의 피해사례, 그리고 합동, 통합, 합신, 고신 등 한국교회 주요교단이 신천지를 이단으로 결의한 공문 등의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최홍준 목사는 지난 17일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1시간 30분 가량 관련된 조사를 받은 후 "부산성시화운동본부를 비롯한 기독교계는 가정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2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와의 전쟁 선포식'을 가진 후, 이단피해자 가족들을 면담하며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6월에는 부산성시화 신천지 이단상담소(소장 권남궤 전도사. 前 신천지 본부강사)가 개소하여 2개월 만에 50회 이상의 예방세미나와 교육활동, 회심상담 등을 펼치면서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속속 회심하고 있다. 또한 법률팀과 사이버팀, 정보수집팀, 언론홍보팀, 상담팀 등 대책기구를 만들어 이단과의 문제를 개교회가 상대할 것이 아니라 부산교계 전체가 힘을 합쳐 대응하고 있다.

WCC, 합동,고신 등 교단별 입장 분명!

예장합동 · 고신 "원칙적으로 반대", 예장통합 · 기장 "성공적 개최 위해 노력"



2013년 부산에서 열리는 WCC(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를 두고 각 교단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심각하다. 총회 파행을 겪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 정준모 총회장)은 WCC 만큼은 일찍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입장에 대한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예장합동은 WCC 반대를 위한 예산을 따로 책정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9월 18일 총회에서 WCC대책위원회(대책위 · 서기행 위원장)가 2013년 부산 총회에 대항하기 위해 예산 2억여 원을 책정해 줄 것을 보고했고, 총대들의 반대 없이 통과됐다. 대책위는 각 지역 노회별 WCC 반대 연합 예배 허락도 얻어냈다. 서기행 위원장은 "WCC를 준비하는 측과 공개 방송 토론을 진행하겠다", "전 교인이 볼 수 있는 토론의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예장고신(박정원 총회장) 역시 WCC에 동참하거나 후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신은 오래 전부터 WCC를 반대해 왔다. 지난 2010년 60회 총회에서 WCC에 관한 성명을 내고, △성경 무오성을 무시하는 신학적 다원주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종교 다원주의 등을 수용하고 있다며 문제 삼기도 했다.

이번 총회에서도 고신은 'WCC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반대 입장을 각 교회에 적극 홍보하기로 결의했다. 박정원 총회장은 WCC가 종교 다원주의와 관련이 있다면서 "깊게 들어가면 공산 국가와 관계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백석(정영근 총회장)은 9월 20일 총회에서 "교단 차원에서 WCC 참여는 하지 않는다"고 결의했다.

반면 예장통합(손달익 총회장)과 기장(나홍균 총회장)는 WCC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기장의 경우 WCC 부산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차세대 지도력 양성 프로그램 개최'를 헌의했고, 이는 지난 9월 20일 반대 없이 통과됐다. 앞서 기장은 지난 1년간 WCC와 관련된 토크콘서트를 두 차례 개최했고, WCC 이해를 위한 노회 강연회도 24개 노회 가운데 11개 노회에서 진행했다. 총회에서 WCC에 대한 시간을 따로 할애할 만큼 내년 WCC 부산 총회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예장통합은 올해 총회가 예정보다 하루 일찍 끝나면서 WCC에 대한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교단에 WCC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출범한 WCC 한국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예장통합 소속 김삼환 목사(명성교회)가 "WCC 덕분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해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됐다"며, WCC를 지지했다. 하지만 김삼환 목사는"내가 WCC가 무엇인지 알았겠느냐, 세계대회이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난리가 날지 누가 알았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또 WCC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선교배타주의 등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세계 개신교회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는 2013년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13일간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반도 통일 △기후변화 대응 △WCC 회원 교단들의 관심과 참여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WCC는 7년 내지 8년 간격으로 열린다.

새로나온 책

하나님 브랜드서 나온 명품 크리스천을 입자

고신일 著 '명품 크리스천'



이 책은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길을 택할 수 있게 10가지 규칙을 보여 주면서 거룩한 삶의 길을 밝혀 주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녀가 싫다고 하여도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책도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익혀 알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강조함에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을 나열하여 근본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그 소중한 10가지 규칙을 품고 짝퉁이 아닌 진짜 명품 크리스천으로 거듭나자.

〈넥서스 CROSS/204p/11,000원〉

대통령 연설 100회 특집,「희망국민들과의 대화」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 인터넷 연설 100회를 맞아, 그동안 연설에서 소개한 인물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딛고 희망과 꿈을 실현하고 있는 국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100회 특집 "희망국민과의 대화"를 함께 제작했다.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온 국민이 함께 극복하자는 주제로 2008년 10월 13일 첫 방송 이후 활기찬 시장경제, 민생안정과 서민복지, G20 정상회의와 세계국가, 런던올림픽의 감동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정운영 성과를 알리고 대통령의 진솔한 마음을 전달하는 기회가 되었다.

*주요주제: 활기찬 시장경제(27건), 사회통합 · 공정사회(18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 · 안보(15회), 성숙한 세계국가(20회), 미래의 희망 · 도전과 성취(15회) 등

이명박 대통령은 특집방송을 통해 역경을 딛고 희망을 찾아가는 국민들과 고졸취업,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민과 중산층에 희망을 주고, 다음 정부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데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시96:6~9)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다."

예배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비 고
새 벽 기 도	매일새벽 5:30	본당	성경강해
주일 1부 예배	주일 오전 7:30	본당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10:00	본당	열린예배
주일 3부 예배	주일 오전 11:30	본당	
주일 4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특별예배로 드려질 수 있음
수요 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9:00	본당	수요철야기도회
각 구역별 예배	각 구역별 지정시간	각 구역별 교우 가정	매월 마지막 주는 연합예배

교회학교 예배안내

부 서 별	시 간	장 소	대 상
유 치 부	주일 오전 11:30	본당 지하 1교육관	취학 전 아동
유 년 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지하 1교육관	초등학교 1~3학년
소 년 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교육관	초등학교 4-6학년
중 등 부	주일 오전 11:30	별관 교육관	중학생 및 동급연령
고 등 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교육관	고교생 및 동급연령
청 년 2 부	주일 오후 4:00	본당	19-25세 미혼
청 년 1 부	주일 오후 4:00	본당	26세 이상 미혼



당회장 엄영수 목사 (대기협 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재광교회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410-9 대표전화 : 031)384-7408 부목사실 : 384-9744, 385-8933

대한예수교 장로회 빛과소금교회

교회 표어 :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담임 이재갑 목사 웨신총회 총회장 본지 상임이사

21세기 비전
1.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은 교회
2.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
3.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4.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2012 목회 지침
네 장막터를 넓히라 (사54:2)
성령의장막터를 넓히자——은사
영혼구원의 장막터를 넓히자-세계선교
섬김의 장막터를 넓히자 --섬김
축복의 장막터를 넓히자 ---나눔

부목사 : 송승길
장 로 : 박광순, 김혜자
전도사 : 임사랑 최원희 박에스더
협동전도사 : 김신애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198
☎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천교회
ANCH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교회(살전 3:8)



담임 유영섭 목사

안천의 3대 비전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변화된 세상

◈ 예배와 교육안내 ◈

예배	· 주일 낮 예배: 1부/오전9시 2부/오전11시 · 새벽기도회: 새벽 5시 · 주일찬양예배: 오후 2시50분 · 구역 예배: 각구역별로 · 수요저녁예배: 오후 8시 · 수요기도회: 오후 9시
주일 학교	· 유 치 부: 유치부실(지상1층)오전11시 · 청소년부:청소년부(지하2층)오전9시 · 아 동 부: 아동부실(지하1층)오전9시 · 영 아 부: 오전 10시30분(1층 영아부실)
평신도 교육	· 새 가 족: 주일 오전10시20분 · 성경연구: 화요일 오후8시 · 성경일독: 아동부실 주일 오후 1시 · 베델성경: 목요일 오전10시,오후8시

(445-380)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38-153
Tel.(031) 234-0511, Fax.(031) 234-7751

탈퇴공고

본 교회는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교단 및

중앙노회를 탈퇴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 10. 24

믿음교회 박정숙 목사 외 교우일동

믿 음 교 회

설교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시는 역사(12)

제6부 보배로운 산돌 (3) 벧전 2:4~9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깨닫게 하셨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보석이 된 '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니다. 계 21:1~2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같이 예비되었더라.

계 21:9~14 또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주리라." 하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 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열두 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열두 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에 문이 세 개, 북편에 문이 세 개, 남편에 문이 세 개, 서편에 문이 세 개이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계 21:19~21 그 도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람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스, 열둘째는 자수정이더라. 또 그 열두 대문은 열두 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본문은 내가 하나님의 보석으로 완성된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보석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계 21:1) = 새 예루살렘(계 21:2) = 어린양의 아내(계 21:9) 하나님의 보석으로 완성된 '나'는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 같이 맑고, 열두 진주문이 있으며, 그 기초석이 열두 보석으로 단장된 새 예루살렘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실 때 복수 개념의 하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1절에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공중의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도 하늘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영광으로, 하늘의 기업과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며 최고의 영광으로 입고 사는 것이 계시록 21장1절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곧 새 하늘 새 땅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의 부활체로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며, 하늘의 영광을 직접 받아서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맞이하게 되는 새 하늘이란 하늘나라의 영광과 하늘나라에서 살 것을 소망하며 살다가 그 소망하던 영광을 직접 우리의 몸에 입은 것을 말하며,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바꿔진 것이 새 땅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영광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옛 하늘이며, 옛 사람으로 사는 혈육의 몸은 옛 땅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이 된 '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영적 존재인데, '새 피조물'이란 그 자체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순교한 이후 하늘나라에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몸, 영광된 영체로 변화된 몸인 새 땅이 되어지면, 직접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부활의 몸이 됩니다.

영광된 몸은 부활하신 예수의 몸과 같은 상태인 영체를 말합니다. 혈육의 몸이셨던 예수가 부활하여 입으신 몸이 새 땅입니다. 현재의 혈육체인 우리의 육신에서 육은 없어지고 영이 껍질을 벗듯이 신령한 몸으로 입혀지고 부활체 속에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몸을 입은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새 땅입니다.

장차 주님 오시는 때 내가 부활할 모습이 하나님의 보석이 된 것이며, 새 하늘 새 땅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 보배로운 피를 흘려 순교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석으로 가장 존귀한 영광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자를 새 예루살렘이라 합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며, 교회가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배도하는 음녀교회도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2007년에 유럽에서 하나의 대통령이 세워질 것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등장하여, 모든 종교가 통합된 바벨 종교를 등에 업고 전세계를 장악하여 정사를 휘두르며, 적그리스도 자신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죽일 것이라는 계시록의 예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무화과나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 비유하셨는데, 현재 이스라엘은 독립 후 5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환란의 때가 진실로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어린 양의 아내는 새 하늘 새 땅의 부활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더불어 순교한 자의 영광에 믿음으로 열매 맺은 영광까지 더하여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보석으로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석이 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다." (계 21:11)고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이 벽옥 같다는 것은 끝이 비치도록 파랗고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투명하고 깨끗하고 맑은 상태를 말하며, 수정 같다는 의미도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티 없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맑은 상태를 말합니다. 바닷물이 파랗고 맑아서 그 바닥이 들여다보여지듯이, 하늘나라도 벽옥같이 아주 파랗고 맑아서 그 끝을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에 열두 진주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진주 같이 귀한 것으로 새 예루살렘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개껍질 속에 모래 한 알이 들어가면 조개가 몸살을 앓고 고름이 흐르다가 다시 굳어지는 고통을 계속 참아내서 결국 진주의 결정체가 완성됩니다. 이렇듯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난과 인내를 거쳐야만 보석으로 완성되게 하십니다.

내가 새 하늘 새 땅이 된 모습의 광채는 이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빛나며 매우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를 흘려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석이 되어지는 것을 몹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실 것을 목격하게 하시고, 본대로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나에게 보배로운 시련과 연단을 거치게 하시고, 순교의 신앙으로 올라 보배로운 그릇으로 쓰임 받다가 보배로운 피를 흘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십니다. 열두 진주문을 통해서 보석성에 이르듯이, 고난과 인내를 거쳐 진정으로 귀하고 빛나는 보석이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영적인 집으로 완공시키시는 분은 예수(히 3:6)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가 부어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므로, 나는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 재림하실 날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보석이 되심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웨신대한노회장
본지 상임이사

칼 럼

변화는 발전인가?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창조는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 창조된 에덴은 죄악이 같이 동거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동방이었다. 옛 부터 우리는 동방예의지국 이라 자처하며 살아온 한민족이다. 또한 백의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다.

깨끗하고 고결한 예의 바른 민족이다. 예의는 한마디로 표현 할 수는 없다. 인간의 바른 품성을 통한 삶을 말 하는 것으로, 배운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언행이 반듯한 것으로, 우리 선조들의 삶은 인간 윤리적인 측면에서 고결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온 것이다.

우리나라 초대 국정의원 들은 채양 넓은 갓을 쓰고, 흰 모시 두루마기에 백마를 타고 위풍있게 관활소를 방문한 것을 사기를 통해 알 수있다. 시대는 변하여 그 후 일본 제국주의 통치하에 모든 것이 깨어졌으며, 해방의 기쁨도 잠시 6.25 전쟁으로 국가 혼란기를 맞아 선조들이 지키어 오던 예의범절 등 모든 것이 흙탕물에 용해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역사의식을 가지고 국가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 등으로 혼란한 사회가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을 극악한 범죄 행위에서 지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제정이 시급하며, 이를 단속하는 기관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또한 자율경쟁을 내세워 남녀공학과 학교 명칭 변경 등은 재고되어야 할 사항이다. 학교는 전통과 역사가 있는 곳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간판이 변경된다면 그 학교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역사 철학이 없는 안타까움인 것이다. 상업고등학교가 인터넷고등학교로,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만들어 교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역사의식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들이다.

서울대학교가 세종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짧은 역사라 할지라도 그 역사는 보존 되어야 하며, 역사가 짧다고 하여 변화시킨다면 주초 없는 건축물과 같은 것이다. 할 수 있으면 모든 공기관의 명칭도 변화 없이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백악관은 영원한 백악관인 것이다. 청와대의 주인이 바뀐다 하여 명칭을 바꾼다면 국가의 부끄러움인 것이다. 역사를 벗어난 변화라면 다시 되돌려 보존 되어야 할 것이다.

1945년에 세운 교회가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건축을 한다면 역사의식이 있겠는가! 역사적인 건물은 후세에 길이 남는 것이다. 특히 교회 건축물은 역사성이 보존 되도록 하여 주일 학생이 장년이 되어 고향교회를 본다면 너무도 좋은 신앙적 추억의 장이 될 것이다.

역사를 벗어난 명칭 변경은 환원하여 고전의 아름다움을 다시 찾도록 하자.

특히 학교의 남녀공학은 경쟁이 아닌 생명을 죽이는 해학이나 마찬가지이다. 학교는 남학교와 여학교로 돌아가 젊은이들을 성범죄에서 보호하여 안정사회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우리 격언에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선조들의 교훈은 인간 생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모든 변화는 고전과 어울려야 발전하는 것이다.



서영웅 목사
프리탄교회 담임
본지 상임이사

"쪽방주민들과 함께 가을을 느꼈어요"

활천문학회,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 주는 문화행사 가져



활천문학회(회장 이강천 목사)는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인천 계산동에 있는 해인교회에서 쪽방주민초청 잔치를 가졌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기 위한 행사였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김수영 권사(시인, 아동문학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는 이재창 목사(활천문학회 부회장, 부개제일교회)의 인사말에 이어 마술, 섹소폰연주, 가요, 피아노연주, 가야금, 하모니카합주, 시 낭송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쳐졌다.

최훈조 목사(부산 행복한교회)가 '만남'과 '동행'이라는 가요를 부를 땐 어르신들이 손을 흔들면서 같이 따라하며 좋은 반응을 보였고, 석희구 목사(계양제일교회)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시간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감상하기도 했다.

또한 지영태 목사(증도 대초리교회)가 섹소폰을 연주할 때는 고향과 가족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고 서울하모니카 합주단의 동요 메들리 시간에는 손뼉을 치면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권정수 장로의 '멋진 당신'이라는 시낭송을 할 땐 가을이 느껴진다면서 너무 좋은 행사라고 찬사를 보냈다.

활천문학회는 앞으로도 교도소, 보육원 등을 찾아 가 문화행사를 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 곽순종 목사
(본지 상임이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사랑.섬김. 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부설/장기 요양원 정동진 희망원



담임목사 최낙현 원장

-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실천신학교수
- 서울 칼로스신학연구원 교수
-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예/배/시/간/안/내
▣ 주일 오전 10시30분 ▣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MTR-school 성경 연구원

구약(벤아세르 MT)과 신약(TR원문)에
의한 강의로 사도교회로 돌아가는 신앙인 교육

- 계시록원전
- 히브리어문법
- 헬라어문법(전 준덕 교수)
  알기 쉬운 52주 헬라어 문법 저자 강의
- 영어문법
- 계시록



원장 김수정
(jtntv방송신문 운영이사)

● 일시 : 매주 화 오전 10시부터 강의 시작
● 장소 : 다메섹교회 (담임목사 : 이원정)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산1번지
031-765-2791, 010-2787-1038
● 문의 : 031-767-7651, 010-6202-6312
김수정 원장(010-7520-7651)

지저스타임즈
광고안내
www.cpj.kr(크리스찬포토저널)
CPJTV인터넷방송
www.jtntv.kr(jtntv방송)
JTNTV인터넷방송

인터넷방송 : 베너광고 및 팝업광고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21개 지사와 해외 26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신문과 인터넷방송입니다.
지면을 통한 신문 지저스타임즈(격주신문)가 있어서 광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문과 인터넷TV방송에 광고를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힘쓰겠습니다.

본 사 : E-mail : jtpress@hanmail.net
웹 하 드 : ID : cpjkr PW : km1122
본사문의 : 032-672-3031(팩스겸용)
070-8230-0034
대 표 : 010-5468-6574
본 사 :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6
편 집 국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2층 202호)

초막절과 추수감사절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7대 절기 중에 특히 3절기는 순례의 추수감사절 절기로 지켰다. 봄 절기로는 무교절기간(1월15일~21일)에 겨울 보리를 추수하여 초실절 날에 첫 단을 묶어 흔들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기로 지켰다. 여름 절기로 오순절 날에 밀을 추수하여 누룩을 넣어 빵을 두덩어리로 만들어서 흔들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기로 지켰다.

가을 절기에는 올리브와 포도와 석류 등, 나무의 열매들을 거두어 하나님께 추수감사절기로 지켰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봄 절기와 여름절기와 그리고 가을 절기에 하나님께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도록 영원한 규례로 명령하셨다.

현대교회들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정해진 11월 3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킨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지키게 하여 우리는 성경에 의한 추수감사절이 아닌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왔다. 하나님께서는 첫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으로 가을에 추수 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린 후에 먹어야 할 것이다.

11월 3째주는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가 다 끝나고 입동이 지나므로 겨울이 시작되어 월동준비도 끝난 때이다.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면 성경적 의미를 찾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찾아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다. 봄 절기의 무교절기간(1월15일~21일)에 겨울 보리를 추수하여 초실절 날(1월18일) 첫 단을 묶어 흔들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기로 지킨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날을 말한다.

여름절기인 오순절 날에 밀을 추수하여 누룩을 넣어 빵을 두덩어리로 만들어서 흔들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기로 지킨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 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다. 이후에는 이스라엘민족뿐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이 문이 열렸다.

가을절기에 올리브와 포도와 석류 등, 나무의 열매들을 거두어 하나님께 추수감사절기로 지킨 날은 마지막으로 주의 재림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천국 창고에 쭉정이는 불속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대심판 때가 될 것이다. 이 명절을 영원한 규례로 주신 것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전에서 짐승의 피와 함께 정해진 예물을 가지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행하여 하나님께 추수감사절로 지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짐승의 피가 아닌 십자가에서 친히 흘리신 피로 완성을 이루시므로 보이는 성전을 허무셨고 짐승의 피를 드리는 예물은 끝이 났다.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토록 내어 준 죄 값으로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게 되었다. 이 시대는 성령님을 영접한자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추수감사 절기를 지킴으로 영원한 규례가 성취되는 것이다. 명절(기일)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모에드인데 그 뜻은 '절기', '정해진 시간' (a fixed time)이다. ~절이라고 할 때 절이란 단어는 하그인데 이 단어의 뜻은 '기념하다', '원을 만들어 움직이다', '춤추다', '거룩한 절기를 지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지킬 때 아주 즐겁고 기쁘게 춤을 추면서 민족의 명절로 지켜왔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in booths(레23:33~43), 장막절: the feast of tabernacles(신16:13~17), 수장절 : the feastival of ingathering(출23:16, 34:22) 레23:42; 너희는 이레동안 초막(草幕)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레23:43;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신16:13; 너는 네 타작마당과 네 포도 짜는 틀에서 소출을 거둘 때 장막절을 칠일동안 지내야한다. 출23:16下; 네가 밭에서부터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두어들인 때 곧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1. 초막절;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주신 7절기 중에서 마지막인 일곱번째 절기이며, 7월이 시작되고 7일이 두 번이 지난 후에 지킨다. 7번째 명절로 7월 달에 7일 동안 지킨다. 성력으로 7월15일부터 7일간 지키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까지는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고 여덟째 날은 성회로 모인다. 민력으로는 1월15~21일까지며 태양력으로는 9, 10월경이다.

첫날에 초막을 지어 초막 안에서 머물면서 7일간 지낸다. 가나안에서는 '에타님월' (왕상8:2)이라 불렀으나 바빌론 포로이후에는 '티쉬리월' 로 명칭이 바뀌었다. 물 잔치와 불 잔치로 명절을 보낸다. 과일추수를 하여 저장하므로 '수장절' 이라고도 부른다. 특별히 유대인의 3절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도록 영원한 규례로 명하셨다(출23:14). 이 3절기는 농사와 관련이 있다. 무교절기간중의 초실절은 겨울동안 농사한 겨울보리를 거두어 첫 단을 드렸고, 오순절에는 여름보리의 추수를 시작하여 밀 추수로 끝냈다.

밀에 누룩을 넣어드렸으며, 초막절에는 올리브와 포도와 석류등 과일추수를 하여 드렸다. 무교절(초실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인 이 3절기 중에서 초막절은 고대에서 가장 큰 명절로 '여호와의 절기' (레23:39, 사21:19)또는 단순히 '절기' (왕상8:2, 65, 12:32, 겔45:25, 느8:14, 대하5:3, 7:8)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초막절이 '절기중의 절기' 였기 때문이다. 이 절기에는 하나님께 어떤 절기보다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 지켰다. 각 사람은 주신 복에 따라 자원하여 드리며 즐거워하면서 지켰다.

초막절은 7일간 초막을 지어 그곳에서 거하면서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장막생활을 하신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교육하면서 기념한다. 모든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 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종교 교육을 하는 명절이다.

2.성경구분;초막절, 장막절, 수장절(레23:33~43, 민29:12~38, 신16:13~17) 레23:33~43 : 성회로 지킬 절기에 대하여; 민29:12~38 : 성회로 지킬 때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신16:13~17 : 성회로 지킬 때에 규례에 대하여.

3. 초막절의 어의와 의미와 다른 명칭 1)초막절(수콧, feast of tabernacles); 종교적의미가 있는 명칭이다. 2)수장절(the feastival of ingathering), 수확절(the feast of harvest); 농사적의미가 있는 명칭이다(출23:16, 34:22); 3)'심핫 벳 하쇼바'는 물 긷는 곳의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4)'호산나 라바'는 일곱 번째 날을 가리켜 말한다. 유대인들은 장막절의 마지막 날을 '큰 구원의 날'로 지킨다.

유대인들은 이 날이 지난해의 모든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사죄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라고 믿는다. 5)'쉐미니 아쩨렛'은 장막절이 시작 된지 여덟째 날로 지킨다. 이 날에는 비를 위한 기도를 드린다; 6)'심핫 토라'는 장막절이 시작 된지 여덟째 날로 지킵니다. 유대인의 토라(유대인의 성경)를 주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다.

4. 세 가지의 명칭을 가진 이유; 농사와 관련지어 농경적인 요소와 이 절기기간이 이스라엘민족의 역사와 관련되어 역사적인 요소와 동시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함을 가르치는 종교적인요소로 세가지의 명칭(名稱)이다. 1)역사적인 요소; ①무교절 – 출애굽할 때 급히 이집트에서 고난과 종살이에서 탈출함을 기념(출12:31~34); ②오순절–출애굽후에 오십 일째 되는 날 열마디 말씀을 받은것을 기념(출34:28); ③초막절 – 출애굽후에 광야 40년동안 장막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기념(레23:41~43),

2)농사적인 요소①무교절–겨울동안 농사한 겨울보리를 거두어 첫 단을 흔들어 드림 ②오순절–밀을 추수하여 밀에 누룩을 넣어 빵을 두덩어리 흔들어 드림 ③수장절–올리브와 포도와 석류 등 과일추수를 하여 저장하고 지킨다.

5. 초막절은 언제 지키는가?

1) 모든 추수, 즉 농작물의 수확과 과일의 수확을 끝내고 저장한 후 7일 동안 지킵니다. 2) 성력으로는 7월15~21일까지, 민력(民曆)은 1월15일~21저녁까지, 태양력(太陽曆)은 9,10월경이 된다. 6. 초막절에는 축하예배를 드렸으며 특히 시113~118편을 노래하였고 초막절기간에는 전도서를 읽었다.

7. 아르바 미님(4가지 종류) 성전시대의 유대인들은 장막절이 되면 모두 '아르바 미님'을 손에 들고 성전에 나가 장막절을 축하했다. ① 좋은 나무가지(goodly trees, 에트로그 Etrog)맛도 있고 향도 있음–토라를 알고 선을 행하는 자, 아브라함을 상징하기도 하며 심장을 상징하기도 하다. ②종려나무가지(branches of palms trees, 룰라브) 맛이 있으나 향은 없음–토라를 아나 선을 행치않는자, 이삭을 상징하기도 하며 척추를 상징하기도 하다.

③ 무성한나무가지(the boughs of thick trees, 도금양 Hadass)–맛은 없으나 향이 있음–토라를 알지 못하나 선을 행하는자, 야곱을 상징하기도 하며 눈을 상징하기도 하다. ④버드나무(willows of the brook, 아라바, Arava)맛도 없고 향도 없음–토라를 알지 못하고 선도 행치 않는자, 요셉을 상징하기도 하며 입을 상징하기도 하다.

8. 초막절을 왜 지켜야 하는가?

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명하셨으므로(레23:14, 21, 31, 41). ②그것들로 인하여 너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으로(민10:10). ③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④바벨화 된 신앙생활에서 거룩한 신앙생활로 돌아가기 위하여. ⑤거룩하고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⑥영, 혼, 몸의 치료를 받기 위하여(출15:26). ⑦헛되이 믿지 않기 위하여(사1:11~20, 고전15:2). ⑧형통함과 크게 성공을 위하여(수1:7~9). ⑨예수님께서 지키셨으므로(요7장). ⑩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정체성을 위하여...

결론; 성경이 전하는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의 3절기를 통하여 봄 절기의 추수감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 여름절기의 추수감사절은 성령강림을 의미한다, 가을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추수감사절로 지켜야 할 것이다.



김수정 원장
성경연구원
jtntv방송신문
운영이사

황성주 박사의 건강학

운동이 성인병을 고친다! (42)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 5 : 17) 최근 선진국에서는 임상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 난치병의 치료에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던 대증요법(증상을 제거하는 치료)에 원인요법(원인을 제거하는 치료)을 병행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원인요법이란 대부분의 성인병이 운동부족, 잘못된 식생활, 과중한 스트레스, 지나친 음주와 흡연 등에 기인하는데 이러한 원인을 그대로 방치한체 결과만을 처리하는 지금까지의 치료의학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새는 파이프를 고치지 않고 고인물을 퍼내기만 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자각이라고 할까. 이런 맥락에서 최근 우리 의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운동요법에 대한 관심은 때늦은 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의학계나 일반인에게 지금까지 통용되는 상식중의 하나는 "환자=무조건 안정"이라는 공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등식은 성인병의 치료에 대한 운동요법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급성질환에 대한 절대적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겠으나 만성질환, 특히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 성인병에 대해서는 안정보다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점점 설득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경우에 운동은 일종의 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약은 잘쓰면 양약이고 잘못 쓰면 독약이 된다. 운동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해서 무조건 시작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리한 운동은 안하는 것만 못한 경우가 있다. 모든 일에 원리와 순서가 있듯이 운동에도 처방이 필요하다. 특히 환자의 경우 운동은 각자의 건강수준에 맞게 전문가의 정밀처방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질병의 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운동은 가벼운 산책이나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상례이다.

성인병의 치료에 있어서 운동이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해서야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성인병이 운동부족이나 비만에 관련되어 있음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심장근육이 약화되고 혈관이 탄력성을 잃게되어 순환기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된다.

각종 심장병과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증이 여기에 기인한다. 또한 운동부족은 근육이나 골격기능을 약화시켜 요통, 신경통, 디스크, 류머티즘 관절염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변비나 소화불량, 반성두통, 우울증등 잔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규칙적인 운동이나 등산 후『증상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다.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수명연장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데 있다.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가을은 운동을 시작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제공해 주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땀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을 운동의 특성이다. 하루 십분씩 아침산책이라도 시작해보라. 출근시 한 정거장 앞에 내려 가슴을 펴고 힘차게 걸어보라. 하루 컨디션이 달라질 것이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건강은 소명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영적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원이란 삶의 전 영역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몸과 마음의 건강이 예외일 수 없다. 부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일을 책임있게 감당하려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건강의 소명을 가진 자로서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일처럼, 일을 운동처럼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황성주 박사



꿈을 이루고! 터를 닦으레!

담임 정연수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www.myhyosung.net

정규예배
주일 전통예배(1부) 오전 9시 (레인보우 아트홀)
주일 현대예배(2부) 오전 11시(레인보우 비전홀)
주일 청년예배 오후 2시(레인보우 아트홀)
주일 오후예배 오후 3시(레인보우 비전홀)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색동홀)
아동부 예배 주일 오전 11:00(교육관)
청소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00(레인보우 아트홀)

기도회 및 모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30(레인보우 아트홀)
수요기도회 1부 매주 수요일 오전 10:30(레인보우 아트홀)
수요기도회 2부 매주 수요일 오후 7:30(레인보우 아트홀)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9:00(레인보우 비전홀)
새가족모임(주간) 주일 오전 9:30(새가족실)
경로교실 매주 목요일 오전 11:00(레인보우 아트홀)

오시는길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 546(효성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499-1)
Tel . 032)552-5200 Fax. 552-5204



2012년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년예배	주일 낮 예배-1부	주일 오전 9:00
	주일 낮 예배-2부	주일 오전 11:00
	주일 밤 예배	주일 밤 7:30
	수요 밤 예배	수요 밤 7:30
	금요영성치유집회	금요 밤 9:00
교회학교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어린이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중, 고등부	토요 오후 4:00
모임	대학부	토요 오후 6:30
	청년회	토요 오후 6:30

문 화 교 실

순번	구 분	시 간
1	충남사모아가대미	화요 오전 11:00
2	바둑교실	주일 오전 10:00
3	탁구교실	주중 오전 12:00
4	제자훈련	주중 정한시간
5	숫돌이 축구교실	주일 오후 3:00
6	음악교실	주일 오후 2:00
7	숫돌이	주중 매일
8	체력단련	주중 매일
9	홍성아동방과후교실	주중 매일
10	총서성경대학	오전반 [수, 목] 오후반 [화, 목]

홍성제일장로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 번지
전화 : 041-634-0441(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핵심장대현교회
Haeksimjangdaehyu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 선 목사

예배시간안내

기관	시간	장소	기관	시간	장소
유 치 부	주일오전 9:00	4층 나사렛성전	장년부	주일오전예배 11:00	2층 대예배실
유년.초등부	주일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2:00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2층 대예배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00	4층 나사렛성전
	주 일 오후3:30				
청년부	토 요 일 오후5:00	4층 나사렛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셀 예배	셀장대학 금요일 오전10:00,오후8:00	2층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매 일 새벽 5:00	
	각 셀 예배	셀 가정별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50-3호
담임 이 선 목사 전화 02)430-9107 . 02)3402-2714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www.scogop.net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 배 안 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 일	오후 3:00	이천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 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원로목사 : 이철재 감독(Bishop)
담임목사 : 이정민 목사(Mi nis ter)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절)

감독 이철재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02)464-3107

W.C.C 를 배격하는 7대 이유

W.C.C 에큐메니칼운동은 본질적으로 비성경적

현대 기독교에 있어서 W.C.C.[World Council of Churches 이하 W.C.C.]세계교회협의회[世界敎會協議會] 에큐메니칼[Ecumenical]운동은 지금까지 기독교가 분열과 분파로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기독교회들을 하나의 새로운 신앙과 신학적 이슈는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이것은 이상의 모든 기독교회를 통합하여 외적으로 통일된「하나의 기독교 통일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W.C.C.는 1959년 하나의 한국장로교회를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시킨 주범이다. 이 영향으로 인해 하나의 성결교회도 기성과 예성도 분열되었다. 그 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 WCC는 제10차 세계대회(2013년)한국 개최로 인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둘로 분열되게 했다.

그것은 WCC가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용공주의 등 반성경적인 적그리도적 운동으로 순수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일치라는 미명아래 카톨릭적 음모로 하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 5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가운데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타난 있는 큰 창녀 바벨론이 종말에 나타날 로마 로마 카톨릭교회와 연합하는 W.C.C. 배교 단체임을 성령님의 크신 조명아래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파우셋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큰 창녀는 결코 이교 로마라고 볼 수가 없다. 이히려 이 말이 만약 어떤 특별한 잘못된 곳을 뜻한다면, 그것은 교황제도의 로마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계시록 18장 2절의 심판과 18장 3절의 영적 음행이 교황제도의 로마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지만, 그것은 교황제도의 로마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에서 떠나도록 유혹을 받고 세속적인 영화와 우상숭배에 이끌린 모든 배교한 교회, 즉 로마 카톨릭, 그리이스 정교회와 심지어는 개신교까지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이 견해에 찬성하는 논증들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기되고 있다.

(1) 큰 창녀가 교황제도의 로마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논증은, 일반적으로 배교한 교회에도 동등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적용된다.

(2) 적그리스도적인 것은 부패한 기독교 안에서만 생겨난다. 따라서 음녀를 배교한 교회라고 해석하는 견해를 제외한 다른 주장들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교 로마라는 견해를 배척하고 또 이와 마찬가지로 교황제도의 로마라는 견해도 역시 배척한다.

(3) 이 견해만이 종말론적 환상의 광범위한 시야를 인식하고 있다. (윌리암 E. 비더울프, 성서 재림 연구,P.489). 이렇게 볼 때‘땅의 음녀들’은 타락한 모든 교회를 뜻하고,‘가증한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이다. 그리고‘이들의 어미’라는 말은 앞으로 세계적인 큰 조직을 가진 적그리스도 종교 단체로 변질될 WCC를 가리킨다. 이것이 큰 성이다.

어린 양의 신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계21:10) 비해 짐승의 신부는 타락한 물위에 앉은 거대한 성 바빌론이다. 각종 사상과 가증한 종교를 산출하는 총본부(성) 매춘부촌이다(박영호).

팀 라하이는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유일한 바빌론 종교가 아니고 초교파적인 교회연합도 마귀의 계획에 속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새로운 종교 바빌론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말하기를“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전국 교회 연합회, 세계 교회협의회 등의 형태로서 자유주의 개신교회가 로마교회에 흡수되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Lbid, p. 422).

헬 린드세이(Hal Lindsey)는 계시록 17장이 그리스도 재림 전 마지막 7년 동안 세상에 꼭 일어날 사건인데, 이 예언은 마지막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예언이라고 지적하고 여기에 모든 거짓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는 세계단일 종교 체제로서 이 제도를 통하여 사단의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인수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WCC는 각종 신앙을 총망라한 우상형 구조를 지향하는‘넓은 마음’으로 동기를 위장하는 음녀 단체라고 하였다(헬 린드세이,대유성 지구의 종말, p.557).

W.C.C는 1965년 6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평화기도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샌프란시스코의 카톨릭 대주교가 그 집회의 사회를 보았다. 그때 여러 나라 종교 대표자들이 그곳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유대교 랍비, 불교 대변인, 전세계 불교도협회, 창설자와 회장, 그리고 남북미 희랍정교회, 대주교, 모슬렘교 대표, 감리교 감독, 마틴 오, 콘너 대주교, 수리아에 있는 라오디게아의 명의 사교(司敎), 교황 바오로 6세의 대표자 등이었는데, 성경뿐만 아니라 그곳에 참석한 각종 종교의 의식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때 우 탄트 유엔 사무총장은 이 의식에 참석하기 앞서 어떤 불당에 먼저 가서 불상숭배를 하고 갔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고, 또한 요한이 말한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 반(反)기독교적 바빌론의 집단이 분명하다(계18:2).

한국 기독교 문서선교회 당시 총무 박영호 박사는 그의‘현대신학 비판시리즈’제3권에서“WCC는 타락한 배교다. 불신앙의 자유주의 기독교의 연합단체이다. 그것은 교리적, 신앙적 정통성을 포기하고 그토록 배교와 불신앙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신앙의 정도를 저버리고 적그리스도와 세상과 간음한 매춘부촌이다”(계17:3,5,9,16,17)라고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W.C.C의 신학을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1. 신학적 좌경화

W.C.C는 각 교회를 묶은 공통분모, 즉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축소된 신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신교의 모든 자유주의 교회, 심지어는 유니테리안 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까지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구원에 이르는 기독교의 참 진리는 에큐메니즘의‘부분적 진리’(part-truth) 혹은‘반진리’(half-truth)에 큰 위험을 당하고 있다.

W.C.C 내의 많은 자유주의 교회지도자들과 신도들은 성경의 영감성, 무오성, 권위성, 절대성, 최종성 등을 믿지 않으며,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들, 곧 교회가 믿음으로 수납하여야 할 진리들-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대리적 속죄의 죽음, 육체적 부활, 승천, 재림, 영생복락, 영혼불멸 등을 부인한다.

실례로 1980년도‘Glock and Stark’조사에 의하면 미국 연합 감리교회는 신도들의 88퍼센트가, 미 연합 장로교회는 87퍼센트가 성경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말슴으로 믿는 것을 부인한다. 분명히 W.C.C 에큐메니칼운동은 본질적으로 비성경적이며, 예수님을‘지도자’‘선생’으로 볼뿐‘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고, 복음의 메시지를 왜곡하여 사회주의적 인조 지상천국의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다.

II. 혼합주의적 연합운동

혼합주의(Syncretism)란 종교적 신조의 절충주의를 의미한다. W.C.C는 기독교와 비가독교 사이의 사상적 조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나의 세계적 신앙을 위한 상호절충의 혼합주의를 택하고 있다. W.C.C 에큐메니칼운동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영광스러운 유산을 배역하면서까지 비복음적 혼합주의 운동을 하고 있다.

종교개혁의 토대는 유일한 성경과 믿음이었다. 루터는 로마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공격했다. 그리고‘나는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리라!’고 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을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창녀로 간주한 것이다.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이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에 전적으로 다른 복음으로 대치시켰음을 공격했다.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였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성령님의 자리를 차지하였고, 교황의 전통과 권세는 성경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였다고 맹공격을 퍼부었다. 그런데 W.C.C지도자들과 그 회원교회에서는 성경의 유일성 및 신앙에 대한 불신자들을 용납하고 있음으로 종교개혁을 배역하며, 또 동방정통교회에 회원 자격을 줌으로써 종교개혁을 배반한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과 전통에 입각하여 종교를 세우고 사람은 믿음과 행실로서 구원받는 것을 그대로 전진하고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W.C.C는 로마 카톨릭교회를 기독교회의 참된 지체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교회와의 관계를 끊을 수 밖에 없게 하였던 그 카톨릭교회의 거직된 교훈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이단설을 첨가하고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교황의 절대 무오설이나 마리아의 승천설 등이다. 그런데도 W.C.C는 가입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에큐메니칼 프레스(Ecumenical Press Service, 1978. 10. 19)에 보면 로마 교황 바오로 2세 취임식 때 W.C.C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W.C.C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새 교황을 선임함에 있어서 축하하며 함께 기뻐하는 바입니다. W.C.C는 제2차 바티칸 회의의 전통이 계승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교회와 W.C.C 회원 간에 발전적인 연합, 협동과 친교가 계속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W.C.C는 로마 카톨릭교회와 새로 선임된 교황과 성직자들이 기쁨과 희망을 가지도록 우리 회원 교회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III. 용공주의적 활동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부정하고 반대한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반해서 물질만이 유일한 실제라고 주장한다. 공산주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인간이 변화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기독교의 영원한 구원관을 대치시켜 지상세계에 낙원을 건설 할 수 있다는 유토피아관을 말한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적이요, 박해자이며 인류의 적이다. 그 근본 이유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변증법적 유물론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공산주의의 입장을 용납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운동이 W.C.C의 에큐메니칼운동이다. W.C.C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대표들을 회원으로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대표들 중에는 강력한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서 W.C.C 에서 공산주의를 공공연하게 선전한 것이 사실이다. 제2차 에반스톤 총회에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50여 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그중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온 흐로마데카(Hromadeka), 헝가리에서 온 피터(Peter) 등은 공산주의 골수분자들이다. 특히 흐로마데카 교수는 제일가는 신교 공산주의 옹호자이다. 그는 “공산주의는 악마의 화신이 아니다. 공산주의자는 인간을 기아와 고통에서 구출하고 착취와 불평 중에서 구출하며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인간을 도와 주고 싶어 한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다고 하였다.

호르마데카 교수는‘기독교 평화회’의 창시자인데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그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기독교 평화회’는“맑스주의자는 아직도 전 인류의 자유를 위한 투사이다. 진정한 복음의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무신론자는 원수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 연약성에 의하여 불행한 희생자로 되었다”라고 가르친다.

W.C.C 제2차 에반스톤 총회에서는 중국에서 대표가 오지 않았다고 하여 매우 상심한 나머지 전 회원들에게 광고하여 유감의 뜻을 표현하였다. 제3차 총회에서는 직접 러시아에서 16명의 대표가 와서 일층 더 본격적인 공산주의 선전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N.C.C는 중국의 승인을 정부에 강요하였다. 1963년 2월~3월간 러시아 공산주의 조종 하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의 교회단체가 3주간 동안 미국의 여러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손님을 대접한 주인이 모두 미국 N.C.C 회원이었다. 당시 미국 장로교 총무였으며, 후일 W.C.C 총무를 지낸 유진 카슨 블레이크 박사가 러시아 종통교회의 교직자 예복으로 단장한 공산주의 첩자들을 환영하는 지도자였다.

블레이크 박사는 소련 비밀 경찰인 니콜라이 대사교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니콜라이 대사교를 극진히 영접했고, 자시도 공산주의 교회를 방문하여 대환영을 받았다. 또 그는 미국의 반전(反戰) 좌파(左派) 청년들이 심지어는 베트공의 깃발을 휘드르며 백악관을 앞을 행진할 때 연설을 통하여“여러분은‘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찬양하였다. W.C.C는 해방신학이란 근거 아래 맑스주의 이론과 실제를 받아들인다.

집권층이나 부유층과 눌린 자와 가난한 자들간의 대립에서 성경해석의 열쇠를 발견하려 하며, 일반 대중을 정치화 내지는 의식화 시키기 위해 현실의 부조리를 선전한다. 해방신학은 정치적 부패와 경제적 빈곤을 제거하고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의 복지를 도모하는 것을 신학의 과제로 삼으면서 인종차별주의 투쟁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1978년 후반에 두 개의 맑스주의가 이끄는 게릴라 단체들의‘인도주의적’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4개의 게릴라 단체들에게 자금을 주고 있다.

로디지아에서 권력을 잡고자 하는‘애국전선’서남 아프리카에서 투쟁 중인‘인민기구’앙골라의‘인민해방운동’등은 소련에서 무기를 받고, 쿠바 군인들로부터 군대 훈련을 받은 맑스주의 게릴라 조직단체이다.

W.C.C의 전 총무 포터 박사는 베트남이 공산화된 데 대해서‘베트남 국민의 경험은 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을 고무해 주었다. 베트남 사람들의 승리는 우리 시대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극적인 소망의 표현이다’라고 말했다.(Ecumenical Press Service, 1977. 6. 9). 포터 박사의 견해로는 베트남의 함락은 베트남 국민의 승리이고, 해방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게릴라 단체들을 고무하는 태도이다.

손기태 박사
AVA 아카데미,
마라나다 한빛교회
담임목사
JTNTV방송,
본지 상임고문



• 한글 개역성경은 개판(改版) : 개정(改正)은 개악(改惡)이다.『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은 개악의 거짓말 성경이다.
• 한국기독교가 개독교 라는 비판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은 개악 개정판 성경의 오류 때문이다.

바른성경 찾는 일이 최우선 교회가 사는 길이다

WCC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WCC는 1959년 하나의 한국장로교회를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시킨 주범이다. 이 영향으로 인해 하나의 성결교회도 기성과 예성도 분열되었다. 그 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 WCC는 제10차 세계대회(2013년)한국 개최로 인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둘로 분열되게 했다. 그것은 WCC가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용공주의 등 반성경적인 적그리스도적 운동으로 순수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일치라는 미명아래 카톨릭적 음모로 하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엄숙한 경고는 다음과 같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고후6:14-18)**

- 킹제임스 흠정역 -

AVA 바른성경선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로 855-37

신간안내 : AVA 토라 대강해 설교전집

손기태 목사 목회50년(희년) 기념도서
- 총 3,570면(각권 평균 350면, 10권 분량)
- 1988년부터 20년 동안 저술한 대작.
- 축자 온전 영감론에 근저한 토라 강해 설교집으로는 한국 최초의 저서.

책 내용

1 **처음에(בְּרֵאשִׁית, 베레쉬트)**
創世記 祝福論(신국판 양장, 750면)
처음에 빛(축복)으로 시작하고, 50편의 요약설교와 십자가의 축복원리

2 **이름들(שְׁמוֹת, 쉬모트)**
出애굽記 救援論(신국판 양장, 845면)
이름들을 택하시고, 88편 강해설교

3 **그가 부르셨다(וַיִּקְרָא , 봐이크라)**
레위記 聖潔論(신국판 양장, 606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79편의 강해설교

4 **광야에서(בְּמִדְבַּר, 베미드바르)**
民數記 奉事論(신국판 양장, 665면)
광야에서 40년 연단 받고, 83편의 강해설교

5 **그 말씀들(דְּבָרִים, 하드바림)**
申命記 말씀論(신국판 양장, 702면)
다시 그 말씀들을 강론하다.
110편의 강해설교

(정가 124,000원)



손 기 태 신학박사

- 계좌번호 -
• 농 협 : 100034-52-229591
• 우체국 : 011866-06-004015
바른성경 출판사
예금주 : 손기태

AVA (Authorized Version Amen)

AVA 바른성경 출판사 마라나다 한빛교회

매주 수요일 요한계시록 수강생 모집

강사 손 기 태 신학박사
요한계시록 50년 연구, 저서 50여권 (계시록 10여권)

기간 10월 3일 ~ 12월 26일(13주) (오전 10시 ~ 오후 3시 까지)

장소 마라나다 한빛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로 855-37

대상 목회자, 전도사, 신학생, 평신도 계시록에 관심있는 재림성도 누구든지

등록 10월 3일 10시까지 소속교회 주보 1매 제출
등록금 무료, 교재대 각자 부담

교재 박사성경, 헬라어 표준원문(TR)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대조한 〈요한계시록 주해〉, 일곱천사의 비밀, 종말의 징조, 계시록52주 구역공과, 개악은 개악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등 약20만원 준비.

선물 참석자 전원에게 ‘언약의무리’ 1권씩 선물, 강사의 저서 모두 특별할인.

박사성경으로 성경박사가 되는 길 !

교통안내 : 경춘로 남양주 시청, 전철 금곡역, 차로 3분 거리

AVA 아카데미
TEL : (031) 592-7079 / FAX : (031) 594-3733

가정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즈원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1. 공평하신 하나님

성경: 에스겔 33장17절-22절 찬송가 198장

우리는 사람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 공평치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길은 언제나 공평하며 그분의 보상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택하신 성읍이라도 반역하고 불순종하면 파괴됩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반역하고 불순종하면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우리가 받은 특권은 책임의 특권이지 죄를 범해도 무방한 면책특권이 아님을 기억하고 오직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

성경: 에스겔 33장23절-29절 찬송가 335장

회개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개치 않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상은 피 있는 고기를 먹고 우상에게 눈을 들고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등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가증스럽게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고의적인 반역과 불순종은 회개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정들은 악한 것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순결한 신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성경: 에스겔 33장30절-33절 찬송가 483장

본문의 내용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신앙상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인정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인정하기는 했어도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라도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의 지식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순종하는 삶이 없다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가정은 알고만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뒤 따라는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 덕스러운 일꾼

성경: 에스겔 34장1절-16절 찬송가 359장

본문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자들의 직무는 모든 대적과 위험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이며 이일을 하되 부득이함으로가 아니라 주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불평함이 아닌 감사함으로 하고 주장하는 대신에 양의 무리에 본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교회에서 맡겨진 직책을 감당할 때 덕스럽게 말하고 덕스럽게 행동하는 일꾼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 죽기까지 충성하는 가정

성경: 에스겔 34장17절-24절 찬송가 464장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참 목자를 세우실 것을 약속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목자는 다윗으로 일컬어집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목자를 선택하시겠다는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참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 양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예수그리스도를 본 받아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 화평의 언약을 바라보는 가정

성경: 에스겔 34장25절-31절 찬송가 429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화평의 언약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언약에는 자기 땅에서 평안히 거하도록 악한 짐승들을 그치게 하는 것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이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정들은 삶 속에 시험과 환난이 있을 지라도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화평의 언약을 바라보며 문제를 뒤집어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 심판이냐 축복이냐

성경: 에스겔 35장1절-9절 찬송가 329장

본문은 에돔에 내려진 심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겠다는 것과 그들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성읍을 무너뜨려서 황무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나라나 민족은 망하게 되어 있으며 개인이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을 떠나 심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 이 길 끝에는

성경: 에스겔 35장10절-15절 찬송가 453장

본문을 보면 '너 여호와가 거기 있느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형편없이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이나 가정들이 세상이 볼 때 형편없이 보일수도 있지만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는 주님이 우리를 서서 맞아주신다는 것과 우리를 늘 보호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 다 하나님의 은혜라

성경: 에스겔 36장1절-15절 찬송가 453장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지를 내고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 땅의 소유자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경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어느 시대나 소산물의 흉작이나 풍작은 사람들의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내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진다 생각지 말고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쉬지 않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 섬김과 나눔 그리고 사랑

성경: 에스겔 36장16절-24절 찬송가 33장

이스라엘 선민들은 어디를 가나 빛 되지 못하고 도리어 땅에 짓밟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패와 행위대로 심판하여 열국에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품행으로 욕망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대적자들과 다투게 될 때는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 다투면 꼭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고 손상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정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 정결함이 넘치는 가정

성경: 에스겔 36장24절-28절 찬송가 333장

주의 백성이 되는 첫째 선결 요건은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으로부터의 정결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정결을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은 주의 은혜로 정결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죄와 더러움을 씻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의 가정이 되어 정결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 회복을 체험하는 가정

성경: 에스겔 37장1절-10절 찬송가 466장

본문을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여 뼈들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면서부터 패망의 시작이 되었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대언으로 인하여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룬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요 영적으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두 죽은 자들이 다시 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어 회복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13. 신나는 살아가는 가정

성경: 에스겔 37장 11절-14절 찬송가 433장

본문의 '이 뼈들' 은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라고 하십니다. 실로 하나님은 소망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끊어진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었으니 이 감격으로 세상을 신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4. 성령의 하나 됨을 힘써 지키는 가정

성경: 에스겔 37장15절-23절 찬송가 325장

본문을 보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와 '두 막대기가 연합하여 하나되게 하라' 함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 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후에 남과 북이 하나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언제나 사단의 계획은 분열이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서로 분열되어 자기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서로가 성령의 하나 됨을 힘써 지키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달의 詩

본향으로 가는 날

주님
저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실 때엔
살아온 인생의 날들을 계수하시어
더 좋을 수 없는 날에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

주님
저를 데려가시고자 하실 때엔
매일 같이 쓰러지는 믿음이었을 지라도
더 좋을 수 없는 믿음위에 섰을 때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

주님
저를 데려가시는 날엔
더 좋을 수 없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

이 세상 짧은 여정 속에서
한껏 더 좋을 수 있는 일들이
없어 보이실 그때에
더 좋을 수 없는 환한 모습으로
천국 길에 서게 하옵소서

조약돌의 속삭임 중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신학
신입생 · 편입생 모집

본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인준 신학으로서
칼빈주의 사상에 깊은 뿌리를 내린 개혁총회신학입니다.
유능한 교수진을 확보하여 성실히 교육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모집과정

과정	학 제	지원자격
신학부	8학기 140 학점 (주 / 야)	• 세례를 받은 자 •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자 •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자 • 전문대 졸업자는 3학년에 편입됨
대학원부	4학기 90 학점 (주 / 야)	• 신학부에서 각 과정을 이수한 자 • 타 신학 또는 이수한 자 • 타 신학에서 중퇴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됨
통신신학	교재이수	• 사명자 누구나 신학공부 가능함 • 학력 연령 남녀 제한 없이 등록 가능함 • 졸업 후 본교에 편입될 수 있음

▶특 권
1.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2. 여목 제도가 잘되어 있음.
3.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음.
4. 본 과정은 지역 캠퍼스가 동등.
5. 대학원부 졸업자는 강도사 고시 합격후 노회에서 목사 임직됨.
6. 통신 신학 졸업자는 본교 신학부 3학년에 편입될 수 있음.

▶입학 서류
• 입학원서, 사진, 주민등록 등본
• 편입 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화곡동 캠퍼스
서울 강서구 화곡동 839-15 5호선 목동역 4번 출구
H.P 010-6282-0707

성남 캠퍼스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400번길 10-1
H.P 010-8320-9125

수유동 캠퍼스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4-80 전철4호선 수유역 3번 출구, 3번 새마을 버스 맹학교 앞 하차
H.P 010-3758-8905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 수 영 목사
- 행복샘전인치유센타원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강사단장
- 기독TV인터넷방송부흥협의회부총재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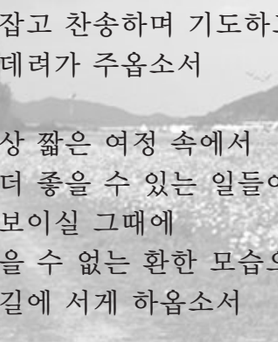
집회 고침받은 내용
☆ 최병옥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 이 외에도 많은 간증문이 있습니다.

집 회 특 징
♥ 신유, 예언, 상담이 정확함(사 11:2, 요엘 2:28)
♥ 병 고침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행 19:11-12)
♥ 원인 불명의 불치병 치료 역사가 나타난다(시 41:3)
♥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은사 접목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 회개와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다(막 16:17-18)
♥ 사명이 회복(목회, 전도, 봉사, 섬김)되는 성회(엡 4:11-12)
♥ 첫 사랑과 전도의 열정이 회복된다(신 6:12)
♥ 영권, 인권, 물권 열리는 성회(대상 4:10)
※ 일일간증집회, 헌신예배, 금요철야기도회, 2박 3일 성회, 교회형편대로

담임목사 : 010-8537-8291 / 교회 : 053) 752-8238

대한예수교장로회
승리교회

표어 :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담임목사 오상렬
(본지 상임이사)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55-1
전화 : 041-564-7004, 041-551-3553

"세습보다 '목회자 성문제'더 심각"

전병욱목사성범죄기독교공동책위원회, <한국교회목회자의 참회 및 공동권고문>발표





전병욱목사성범죄기독교공동책위원회(공동대표 김주연 백종국 박종운)는 '한국교회 목회자의 참회 및 공동 권고문' 발표 기자회견을 12일 오후 2시에 홍대새교회 앞에서 열고 전병욱 목사의 면직을 요구하며 평양노회에서 이를 다룰 것을 촉구했다.

"교회 거룩성 회복은 '징계'에 있어 … <평양노회> 전병욱 목사 면직시켜야"

이진오 목사(더함공동체)는 "한국교회에 세습문제보다 심각한 것은 목회자의 성문제"라며 "공무원이나 선생님도 성범죄 이후 복귀할 수 없는데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목회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성토했다.

이 목사는 특히 "교회 거룩성의 회복은 징계에 있다"며 "전병욱 목사의 징계권한을 가진 평양노회는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 이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최근 삼일교회에 부임한 송태근 목사에게도 전 목사에 대한 평양노회의 면직 청원을 요청했다. 이 목사는 "삼일교회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행함과 실천으로 정당하게 평양노회에 공식적으로 징계를 촉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교형 목사(찾는이광명교회)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전한 오세택 목사(두레교회)는 "사태가 커지기 전 문제해결을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까지 나서며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은 법조인만을 내세워 치부를 숨기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이번 기자회견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목회자가 먼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 것"이라며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회개하고, 치부가 있다면 이를 드러내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종환 목사(함께하는교회)는 문제를 은폐한 삼일교회 당회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담당자들에 대한 퇴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삼일교회와 평양노회에 전병욱 목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그는 "삼일교회는 제대로 징계하지 못한 것을 책임져야 한다"며 "사과나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을 했다고 면죄부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를 은닉하고 숨겼던 삼일교회의 당회가 있다. 이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새로 담임목사로 부임한 송태근 목사와 성도들은 공개적으로 평양노회에 전병욱 목사의 징계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홍대새교회에 대해서는 "전 목사가 개척한 홍대새교회도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의 교회성을 상실했다"며 "전 목사의 성범죄를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이에 동조하는 것이자 피해자들을 동조하는 행위"라고 질책했다.

이어 김 목사는 "전 목사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전병욱 목사는 사임하고 목회자가 아닌 성도로 남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 목회자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해 달라"

참석자들의 발언을 끝으로 이들은 총 142명이 서명. 참여한 '전병욱 사건 관련 한국교회 목회자의 참회 및 공동 권고문'을 발표해 목회자 성범죄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다.

박성진 목사(무지개교회)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와 관련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깊이 참회하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국민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한 목회자에 대한 비판 이전에 우리 목회자들의 죄악과 소명상실, 윤리 부재를 참회하며 깊이 뉘우친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더욱 정결하게 되고 교회의 자정적 개혁을 통해 한국교회가 더욱 성숙해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양노회와 합동측 총회는 전병욱 목사 사건을 재판건으로 치리해 면직 조치 하기를 요청한다"며 "전병욱 목사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사고하고 자숙과 회개의 시간을 통해 일체의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삼일교회 당회는 전 목사의 치리권이 있는 평양노회에 징계를 요청해달라"고 선언했다.

끝으로 한국교회를 향해 "교단과 신학교 및 주요 교회연합기관들은 교회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연구와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 달라"며 목회자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병욱 목사 면직 촉구를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회를 지난 15일까지 홍대새교회와 분당중앙교회에서 가졌으며, 또한 지난 15일 평양노회가 열리고 있는 분당중앙교회 앞에서 전병욱 목사 면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대새교회 관계자 몇몇이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마찰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일 홍대새교회 건물에는 <홍대새교회> 이름의 플랜카드를 대신해 간판을 내걸고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김농주 목사 제7회 사랑나눔바자회 열어

오산반석교회

오산반석교회(담임 김농주 목사)는 지난 13일(토) 사랑나눔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바자회에는 안민석 국회의원, 김미정 오산시의원, 지역 기관장 등이 참석하여 지역에 어려운 이웃, 소년소녀 가장, 지체장애자들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열어 힘쓰고 있는 오산반석교회 김농주 목사 내외와 성도들을 격려했다.

이날 바자회 품목들을 보면 "오징어젓, 조개젓, 낙지젓, 새우젓, 김장용 젓갈, 건어물로는 멸치, 미역, 다시마, 쥐포, 또한 두유, 달걀, 들기름, 참기름, 헛옷과, 신발, 가방, 먹거리로는 파전, 순대, 국수, 오뎅, 각종 튀김, 만두 등 다양했다.

김농주 목사는 이날 '기도하는 가운데 소년소녀 가장, 독고노인들을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갖고 바자회를 시작했다고 말한다. 김 목사는 동사무소를 찾아가 바자회에서 얻은 수입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전달했다. 때로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 소년소녀 가장, 독고노인들의 명단을 동사무소에서 전달 받아 직접 찾아가서 옷과 쌀, 과일 등을 전달하고, 김장을 해서 직접 전달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써왔다.

그러던 중 3년 전부터는 오산에 있는 "광야어린이집"에는 지체장애자들과 소년소녀 가장이 약 15명이 있는데 이곳 한 곳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바자회를 열어 돕고 있다고 한다.

이날 오산반석교회를 섬기고 있는 염지수 집사는 담임목사와 교회를 이렇게 자랑한다. '바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오산반석교회 김농주 목사님은 예능계통에 탁월하셔서 다재다능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교회설립 8주년을 맞이하시기까지 설립 처음부터 결속된 성도들이어서 다 신실하고 하나같이 단결이 잘되고,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데 동참해 주시는 성도들이 너무 좋습니다. 8주년을 맞아서 총동원 전도주일을 갖고 힘쓸 것입니다. 특히 바자회를 열어 지역에 오산반석교회를 알리는데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람을 느끼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오산반석교회 김농주 목사는 10월 28일 설립 8주년을 맞아 추수감사예배를 겸하여 광야어린이집 지체장애자들과 소년소녀 가장들로 구성된 찬양과 연극으로 축제를 열 예정이다. 또한 이날 바자회를 열어 수입 전액을 광야어린이집 장애자들에게 전했다.

축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대한노회 제9회 성노회

노회장

장 한 국 목사
(주사랑교회)

부노회장

오상렬 목사
(승리교회)

서기

반민규 목사
(백호샬롬교회)

(신임)회의록서기

박명자 목사
(생명수교회)

회계

유윤주 목사
(지구촌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84 대림프라자(고흐7층)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 대한노회 노회장)

• 선교사 : 김경자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오후 5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오후 6시
새 벽 예 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낮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저녁 6시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7층
전화 : 031)424-7612
H.P : 010-4436-7060

IT 부정선거시한폭탄 제거 서둘러야

IT와 결합 된 선거여론조사 횡포, 전자개표기 위험성 극에 달해



창(矛)과 방패(盾)를 파는 초(楚)나라 상인의 고사가 주는 교훈이 아니라도 인간이 만든 문명의 이기는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의도대로 조종되고 인간에 의해서 파괴 된다. 2002년 12월 제16대 대선 이래 현재까지도 가시지 않는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의혹은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라고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야권 후보단일화 과정과 9월 민주통합당 경선과정에서 IT기술을 악용하여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과 SNS 부정선거는 IT선거의 폐해와 위험성에 대한 심각한 경고이다. 더구나 세계 최강 수준의 사이버전력을 보유한 북한 김정은의 해킹능력은 수차에 걸친 DDoS공격으로 현실적으로 위협이 된지 오래다.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설립근거나 규제 및 감독 없이 '통제 안 된 권력'으로 급성장한 여론조사분야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한 부실 여론조사업체가 주사파 경력 등 특정인맥과 특정정치세력이 결탁하여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이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심이 왜곡되고 표심이 오도되고 있다.

여론조사가 고전적인 면접조사방식 대신에 자동응답방식(ARS)이나 임의번호걸기방식(RDD)에 의한 표본추출에서부터 전화문답조사, 응답결과 취합 및 통계처리, 조사결과 작성 전 과정이 IT와 결합됨으로서 여론조사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감독도 여론조작 여부의 판정을 위한 검증도 불가능 한 실정이다.

한편 당락을 결정짓는 개표과정에 전자개표기(선관위 개표분류기로 명칭변경)사용여부는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정당과 협의에 따라 결정(선거법 보칙 278조 4항)하며, 선관위에 여야교섭단체가 참가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돼 있다.

또한 후보자가 추천하는 개표참관인(선거법181조)과 사전에 하가 된 개표관람인(선거법182조)에 의해 전자투표 및 개표 참관(278조 2항)을 보장토록 하고 있어 외형상으로는 공명선거 실시에는 별반 문제가 없을 것처럼 착시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집계 등의 과정에 육안에 의한 참관을 보장한다는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 식 속임수이며, 외부의 해킹이나 불순세력에 의한 내부 프로그램조작으로 얼마든지 개표결과를 조작, 당선자를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호도하거나 간과해선 안 된다.

2012년 제18대 대선은 후보개인의 당락도 문제이지만, 대선 승패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리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임으로 북한의 김정은 집단이나 남한의 종북 반역세력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라는 형식과 개표라는 결과에 편승하여 승리를 도둑질하고 '가짜대통령'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손쉽게 속여 넘기기에 가장 쉽고 부정선거음모를 감추는 데에 용이한 취약분야가 여론조사를 빙자 한 여론조작과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결과 조작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알만 한 상식이 된지 오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위험이나 부정선거 요소라고 할지라도 이를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함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굳건히 할 올바른 국민주권행사와 그에 따른 정당한 결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나 희생도 감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개표기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위험성은 북괴 김정은의 해킹뿐만 아니라 국내(민노총 가입을 시도 했던 선관위 민공노 추진 세력 등)불순세력에 의한 개표결과 조작 등 양면적 위협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사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거부' 조치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초 선거법개정협상 과정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SNS 모바일투표 선거법개정 요구를 일축함으로서 모바일 부정선거 위험을 사전 차단한 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하며, 최근 종북 진영에 의해서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불법적인 투표시간 연장 요구 역시 묵살해야 마땅하다.

올바른 선거를 위해 정치 및 선거여론조작 횡포를 밀착감시, 철저히 예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자개표기의 사용 중단으로 김정은과 종북 반역 불순세력의 개표조작 등 IT부정선거음모를 사전에 차단할 단호한 조치와 결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지저스타임즈 2012 제5차 정기이사회 열어



C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이사장 정기환 목사)는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소재 향기로운교회(담임목사 정일량)에서 전국 지사장 및 이사들이 모인 가운데 오전 11시 2012년 제5차 정기이사회를 가진 후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인천지사장 곽영민 목사(등불교회 담임 /사무국장)의 인도로 1부 감사예배가 진행되어 상임이사 정일량 목사(향기로운교회)가 기도를, 성경 롬5:14~15절을 봉독한 후 운영이사 유윤주 목사(지구촌교회)의 특별찬양에 이어 이사장 정기환 목사(전원중앙교회)는 "복음의 발길"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대구지사장 박수영 목사(대구행복샘교회)의 봉헌기도가 있은 후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가 인사를,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의 광고가 있었다.

이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12월 대선을 위하여, 본사와 지사 및 해외 지사를 위하여 운영이사 노복녀 목사(은총기도원 원장), 포항지사장 이기학 목사 등이 특별기도가 있은 후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 축도로 마쳤다.

이날 이사장 정기환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상임이사 정일량 목사, 중부지사장 박양우 목사, 상임이사 장한국 목사, 포항지사장 이기학 목사, 대구지사장 박수영 목사, 운영이사 김남수 목사, 운영이사 유윤주 목사, 운영이사 송미순 목사 외 많은 이사가 뜻을 같이하고 본사 발전과 지역을 대변하는 지사운영에 있어서 덕담을 나누었으며, 신문 보급에 있어서 각 지사는 구독자들을 방문하여 1년에 1회만이라도 문서선교를 위한 선교비를 부탁드려 구독자 개개인이 인터넷방송과 본사 운영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신문과 방송이 행사위주로 기사와 보도가 되는 것 보다는 일반 평신도들도 쉽게 이해하고 다방면으로 힘쓰는 신문 방송이 되기를 주문하고, 신문사의 발전을 위하여 본지 부흥사회를 조직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사진 모두가 동참하며, 더 많은 부흥사회원을 가입케 하여 12월 21일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 새성전)에서 제6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부흥사회 발족식을 예정이다.

한편 상임이사 장한국 목사는 매주 금요기도회를 통해 신문방송을 위하여 특별기도회를 갖는다는 다짐과 함께 이사진 모두가 기도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끊임없이 재림주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크리스천투데이 설립자 장재형 목사가 8년 만에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을 재림주라고 하는 증언들에 대해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그럴 만한 개연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장재형 목사는 지난 20일 서울 반포동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오는 2014년 세계복음주의협의회(WEA) 한국 총회를 앞두고 북미이사로서 총회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단성 의혹이 교계 내 행보에 발목을 잡자 기자들과의 만남을 자처한 것이다.

그는 작성해 온 신앙고백문을 읽으며 자신이 재림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그가 밝힌 신앙고백문은 과거에 밝힌 내용과 다를 바 없었다.



장재형, 재림주 아닌데 제자들이 믿으니 내 잘못?

문제는 그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그를 재림주로 믿었던 청년들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재형 목사는 전 선문대 교수 출신으로 통일교와의 관련설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단 시비로 지난 2004년 한국을 떠났지만 미국, 일본, 호주, 홍콩 등지에서는 그를 재림주로 믿었다는 증언들이 현지 언론에서 보도됐다.

지난 8월에는 미국 기독교 잡지 〈크리스채니티투데이〉가 장재형 목사의 그룹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를 재림주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실어 또 다시 장 목사의 재림주 의혹설이 불거졌다. 특히 〈크리스채니티투데이〉의 취재원이 크리스천 포스트 싱가포르판 전 편집인 부부였기에 신뢰성을 더했다.

"재림주라고 가르친 적 없다…제자들이 그렇게 믿는 것은 내 잘못"

이렇듯 지속적으로 그를 재림주라고 믿는 증언들이 나오는 석연찮은 점 때문에 한기총에서도 이단대책위원회 안건으로 매년 그가 다뤄졌다. 또 예장통합, 예장합신 등 주요 교단에서는 '예의주시-교류금지' 판정을 내렸다.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수호위원회도 이들 교단의 결의를 받아들여 장재형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장 목사는 "나를 재림주라고 하지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며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믿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재림주로 믿는 것과 관련 "얼굴 없는 사람들이 나를 재림주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 부덕의 소치요 잘못"이라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믿는 것은 나와 상관없다"고 밝혀 여전히 의구심을 남겼다.

장재형 목사는 재림주 의혹이라는 말에 강력히 항의하면서도, 주요 교단들의 이단성 요소 및 예의주시 등의 결정을 바로잡는 것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는 "교단들은 그런 결의를 할 수 있다"면서 "부당하다고 알렸지만 나에 대한 이단 의혹이 아니라, 이단 날조 의혹일 뿐"이라고 밝혔다.

원로들 행보, 오히려 혼란 야기 우려

장재형 목사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복음주의협회 김명혁 회장과 숭실대 김영한 교수가 배석해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의 행보는 소속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의 결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일부 교단 관계자들의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다.

김명혁 목사는 "장재형 목사가 나를 찾아왔길래 신앙고백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교단의 입장과는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개인적인 입장으로 나온 것"이라면서 "여기서 이단 의혹을 풀거나 안 푼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김명혁 목사가 속한 예장합신 교단은 장재형 목사에 대해 '이단적 요소가 있으므로 예의주시하고 교류를 금한다'고 결의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재형 목사가 통일교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었고, 스스로 재림주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런 의혹이 일회성 고백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가 공식적으로 각 교단의 의혹을 해명하기보다는 교계 지도자를 통해 사적으로 이단 의혹을 풀려는 시도 자체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그의 행보를 반증하고 있다. (뉴스미션제공)

세계최초 PC형 완전 칼라주보인쇄기
2012년 신제품!!
세계최초 PC형 3도 칼라주보인쇄기
8.5인치 대형 스크린
FORCJEC엔진사용 분당최대150매
고정 직렬 헤드로 세계최고 150ppm
장당 잉크비 20원(20%차트)
대용량 잉크로 대량생산
잉크(4EA) 이외에 별도의 소모품이 필요 없습니다.
최대적재 용량 2,500매
ADF옵션
2단 4면, 3단 6면, 4단 8면
大 사이즈, 주보까지
★ 세계 최고의 속도
분당 150매
시간당 9천매 생산
작업시간단축
★ 저렴한 칼라비용
컬러유지비 80%절감
장당 20원(20%원고)
★ 슬림하고 컴팩트한 디자인
사무환경 최적화
★ Flexibility
최대 548㎜ 인쇄
다양한 출력물제작
★ High Speed
150매/분(9천 매/시간)
작업시간단축
★ One Pass Two Color
드럼2개 동시장착
동시 3도 인쇄
★Color Performance
1칼라추가로 인지도 향상
풀 칼라 구현 효과
★Flexibility
최대291X412㎜
(카드, 봉투, 엽서)
다양한 처리능력
color
color
高생산성 (High Speed)
① 분당 150매의 고속출력
② 3도 양면주보 500부 인쇄시간 9분
③ 칼라드럼 교환 없이 동시 3도 인쇄
④ 고속, 낮은 코스트로 시간 비용 절약
高해상도 (High Quality)
① 600dpi의 고 해상도 출력
② 이미지 및 작은 글씨도 선명
③ 독자 3도 인쇄기술로 칼라인쇄
④ 최대 인쇄 사이즈 291X412㎜, 용지46~210g/㎡
세계최초! 세계최저!!
A3 20매
600~700만원 하던 기계를...
200만원대 출시기념!
가격은 흑백! 품질은 칼라!
이미 2,000여 교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A3를 한번에 자동으로 양면을 컬러/흑백, 복사/프린트/스캔 가능한
슈퍼 복합기 ₩6,600,000
₩2,990,000
컬러 복사기
컬러 프린터
스캐너
흑백 복사기
흑백 프린터
팩스 (옵션)
양면 (옵션)
주보 인쇄기
칼라복사! 흑백도 됩니다.
PC형주보인쇄기
비용절감 90% 처리속도 100배!!
최고 90% 이상의 비용절감과 제판기 인쇄기·복사기 프린터기 기능을 동시에 한대로 갖춘 고효율성! 뛰어난 내구성과 고해상도의 다양한 컬러인쇄!!
2011년 신제품출시
세계 최초 1m 20 출력
주보 2단 4면, 3단 6면, 4단 8면(복사, 출력) 가능
인쇄 + 복사 + 스캔 + 팩스 = 하나로
동급 최고의 인쇄 속도를 지원하는 콤팩트한 디자인의
주보용 컬러 레이저 복합기
₩1,595,000
₩890,000
중철제본 & 접지기
B5~A3까지 중철제본 접지
1장 이상의 주보, 교재, 책자 등
20매 80페이지 가능
주보접지기
2, 3, 4단 주보 한번에 접지
접하는 간격조절 가능
분당 120매 접지
주보 인쇄기 보급 5,000대,
전자동 디지털 칼라 주보 복합기 2,000대 기록 달성!
영광기업을 사랑해주신 교회와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영광기업 대표이사 정학영 장로
H·P : 010-5779-0691, 010-3651-8572
주식회사 영광기업 Glory Enterprise Co.,Ltd.
1588-0691
www.jubo114.com
종로전시장 ※50여종의 기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51-3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앞)
Tel. 02)764-5890~2 Fax. 02)764-5893 공장. 032)551-4114

이재갑 총회장 웨신교단발전에 최선을 다짐

"웨신총회를 한국교계에 표준총회로,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는 10월 20일(토) 오전 11시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소재 빛과소금교회 본당에서 직전총회장 성흥경 목사 이임과 총회장 이재갑 목사는 총회임원과 감사가 동시에 취임하는 감사예배를 드렸다.

부총회장 장창윤 목사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서기 조강수 목사가 기도를, 김안식 목사(회의록서기)가 성경봉독을, 빛과소금교회 임마누엘찬양대의 특별찬양에 이어 임칠환 목사(증경총회장)는 "지도자의 길"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설교에서 임칠환 목사는 하나님이 바라는 지도자란,"자기 임무를 완수하는 자이며, 말씀의 반석위에 서서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이기에 열심을 다해 헌신의 길, 지도자가 갖출 요건을 마음에 담은 자라"고 했다.

아울러 임 목사는"할 일이 많은 이때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로 등용되었기에, 멋있는 지도자, 멋있는 엘리트, 선망되는 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진정한 지도자란 첫째 성숙된 인격적 행동을 하는 사람, 둘째 진실성을 지닌 윤리적 태도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임원들은 단합된 모습, 균형과 조화 있는 웨신의 금자탑을 쌓아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정렬과 지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총회장과 임원들로 총회발전에 큰 역사가 있기를 기원"했다.

이어 직전총회장 성흥경 목사는 이임사에서"지난 3년 동안 총회장으로 재직시 임원진과 총회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으로 위기에 처한 총회를 수호하고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면서 새로 취임하는 총회장과 임원들이 일치 단합하여 웨신총회가 무한발전하기를 염원"했다.

또한 이재갑 신임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직전회장이 닦아놓은 기반위에서 웨신총회가 한국교계에 표준총회로 업그레이드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아 부으며 명실공히 총회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짐"했다.

이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경서교회)는"최근 한국교회의 위기는 정체성의 부실과 혼란에서 기인된 것으로 WCC는 적그리스도 이단인데, 이러한 이단옹호와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퇴락시키면 작금의 한국교회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정화되고 바로 설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될 것이라 전제 하면서 이 일에 웨신총회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축사"했다.

이날 총회장 이재갑 목사, 부총회장 장창윤, 허성인 목사, 서기 조강수, 부서기 정기환 목사, 회록서기 김안식, 부회록서기 유윤주 목사, 회계 이영풍, 부회계 양덕심 목사, 감사에 이 규, 이이중 목사가 취임하고 총무에 신언창 목사가 재 인준 취임하고 취임패수여와 꽃다발을 받았다.



한기총 총무협, 제12회기 정기총회 열어

총무협 신임 회장에 황규철 목사 선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협의회(이하 한기총 총무협)는 17일(수) 오후 2시 한기총 회의실에 제12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무협 신임 회장에 황규철 목사를 선출 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회원교단 총무 39명이 참석하고, 1명이 위임하여 개회됐다.

회의는 감사보고, 서기보고, 회계보고가 차례로 진행되었고, 이어진 임원개선에서 회장 황규철 목사, 부회장 김병근 목사, 강구원 목사, 김홍성 목사, 권오삼 목사, 정춘모 목사, 서기 서승원 목사, 부서기 강세창 목사, 회의록 서기 박형철 목사, 부회의록 서기 이중식 목사, 회계 이병일 목사, 감사 송태섭 목사, 이영욱 목사가 각각 선출 되었다.

신임 총무협 회장 황규철 목사는"부족한 자에게 귀한 중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하다"며"믿고 세워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회원교단 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한기총의 발전을 위해서 화합하고 노력하는 총무협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한편, 회의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직전 총무협 회장인 임종수 목사가 열왕기하 2장 5-16절을 본문으로 '엘리야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총무협의회 신, 구 회장 및 임원 이.취임식은 11월 16일(금)에 가질 예정이다.

피종진 목사 11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1(목)~3(토) 필리핀(Philippines) 다바오(Davao) 선교사세미나, 평신도연합성회 ☎ 070-8200-0042
5(월) 저녁 일산 든든한교회(장향희 목사) ☎(031)977-8383
주최: 연세대학교 총동문목회자부흥협의회(총재 강영선 목사)
6(화)~7(수) 김포 강림교회(조경숙 목사) ☎(02)2662-0692
7(수) 저녁 인천 계양구 기독교연합성회(연합회장 강기선 목사)
8(목)~ 9(금) 김포 강림교회(조경숙 목사) ☎(02)2662-0692
10(토) 오전 부천 행복교회(이화평 목사) ☎(032)344-3313
12(월)~15(목) 서울 강남생수기도원(원장 윤순덕 목사) ☎(02)2683-4202
16(금) 오전 서울 성락성결교회(지형은 목사) ☎(02)467-8105
주최: 한국기독교부흥지도자협의회(회장 박태희 목사)
16(금) 오후 한영신학대학교(총장 한영훈 목사) 실천목회연구원(원장 피종진 목사) ☎(02)2067-4511
16(금)~17(토) 부산 JS TV 위성방송센터(이사장 피종진 목사, 사장 이종문 목사)
18(주일) 오후 일산 예수생명교회(노요한 목사) ☎ 016-9315-7354
19(월)~22(목) 청주금식수양관(원장 백효선 목사) ☎(043)269-5211
24(토) 오후 M.T. 문화행사
25(주) 오후 김천 아포지역 연합간증성회 ☎(054)431-5221
25(주)~27(화) 군산 한빛교회(정명희 목사) ☎ 010-6359-3757
27(화) 저녁 서울사랑교회(김덕겸목사)☎019-9228-5213
28(수) 오전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김상길 목사) ☎(031)947-0091
주최: 세계치유선교센터(대회장 민충만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
010-5255-7777
jongjin7777@gmail.com
TEL : (02)3411-9191
FAX : (02)401-7770

향기로운교회 창립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드려

웨신, 중앙노회는 정일량 목사를 향기로운교회 담임목사로 위임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중앙노회(노회장 정기환 목사)는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소재 향기로운교회가 설립 12주년을 맞아 정일량 목사를 위임목사로 추대했다. 이날 먼저 향기로운교회 설립 12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가 중앙노회 서기 최재필 목사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이일웅 목사(총신 목회대학원 동창회장)가 기도를, 권순화 목사(한국헤비탁트담임)는 성경 벧전4:10~11절을 봉독했다. 이어 향기나무 워십댄스의 찬양 / 향기새싹 율동, 나의 가는 길 로페카 워십과 특별찬양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노문길 목사(백석총회 증경총회장)는"하나님의 일군"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시간을 갖고 노은호 목사(연수구 기독교연합회총무)의 봉헌기도가 있었다.

이어 2부 목사위임식에서 중앙노회 부노회장 손백두 목사의 사회로, 손성규 목사가 기도를, 노회장 정기환 목사는 위임서약을 갖고 정일량 목사를 향기로운교회 위임목사로 선포하고, 위임패 전달과 꽃다발증정이 이어졌다.

이어 3부에서 전임전도사 임명 및 안수집사 선포식에서 담임 정일량 목사는 이귀선 전도사(샤론)를 전임전도사로 임명하고, 노회장 정기환 목사는 정대봉 집사를 안수집사로 선포했다.

이어서 총회장 이재갑 목사(웨신총회)는 목사에게, 김길수 목사(인보총 총회장)는 전도사, 안수집사에게, 전석도 목사(잃은양찾기운동본부 총재)는 교인들을 향해 각각 권면하고, 홍성선 목사(NGO세계기독청 창립재단이사장), 이춘석 목사(양양평화금식기도원 원장), 국회의원 황우여 의원, 지상배 목사(영락요양전문센터 원장) 등이 각각 축사했다.

이어 담임 정일량 목사(향기로운교회)가 광고를, 임칠환 목사(웨신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향기로운교회 창립 12주년을 맞아 담임목사로 위임받은 정일량 목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하고 중앙노회 노회장 정기환 목사를 비롯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과 창립 12주년 감사예배 및 위임식에 참석한 내, 외분들을 향해 감사로 인사했다.

창립10주년기념 개척교회설립(미얀마 · 캄보디아) 임원·이사 취임 감사예배

(구국특별기도회)

잃은양찾기운동본부 조직도

■ 일 시 : 2012년 **10월 29일**(월)오후 2시

■ 장 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명예총재 길자연 목사
총재 전석도 목사
여성총재 황단비 목사
부총재 임화영 목사, 조강수 목사, 안정숙 목사
이사장 임순자 목사

부이사장: 정일량 목사, 홍베드로 목사, 정창진 목사

운영이사: 길자연 목사, 전석도 목사, 임순자 목사, 조강수 목사, 정일량 목사, 임화영 목사, 정태익 목사, 이충희 목사, 황단비 목사

운영이사: 안정숙 목사, 홍베드로 목사, 이성모 목사, 추어병 목사, 조정식 장로, 정창진 장로, 강창원 장로, 김권중 장로, 윤선율 장로, 이종희 장로, 이재선 장로, 오은경 권사

이사
정연수 목사, 박승환 목사, 황주용 목사, 최종도 목사, 정영선 목사, 문지영 목사, 강용해 목사, 최덕순 목사, 김외식 목사, 김선호 목사, 김복만 목사, 임정현 목사, 신강용 목사, 황설주 목사, 이종학 목사, 황창연 목사, 강진구 목사, 박경우 목사, 이홍균 목사, 안선희 목사, 우유리 목사, 최성순 목사
장기환 장로, 강진회 장로, 이희종 장로, 권오영 장로, 윤병진 장로, 임종대 장로, 윤덕재 장로, 김만영 장로, 강신홍 장로, 동현명 장로, 서금석 장로
박연옥 원장, 신옥산 원장, 심재옥 원장, 김광진 원장

홍보이사
허경화 목사, 김보라 목사, 허창희 장로, 박기룡 장로, 유경선 장로, 김주영 전도사, 김지혜 전도사, 이정희, 이정미

개척교회 설립위원(미얀마 · 캄보디아)
고 문 : 길자연 목사, 배순직 목사
위 원 장 : 전석도 목사
부위원장 : 임순자 목사
위 원 : 조강수 목사, 정일량 목사, 황단비 목사, 추어병 목사, 이종희 장로, 조정식 장로, 김권중 장로, 윤선율 장로
감 사 : 권오영 장로, 김주영 전도사
본 부 장 : 강창원 장로 서 기 : 이충희 목사
회 계 : 안정숙 목사 총 무 : 오은경 권사

주최 : 잃은양찾기운동본부
주관 : 기독신문사, 기독신보, 국제사랑재단, 기독평화사, 청신건설(주)
협찬 : jtntv 방송 및 지저스 타임즈

잃은양찾기운동본부
사무실 :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17-11 대진빌딩 3층
TEL : (02) 3390-4995(팩스겸용), HP : 010-3191-4895

예수믿고 천국 갑시다 잃은양 찾기 운동

총회신학연구원
신 편 입 생 모 집

- 이사장 : **정태익** 박사
- 운영이사장 : **안정숙** 목사
- 학장 : **신성종** 박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연구원
입학 상담문의 : 교무처 02-466-8591
TEL : 02)**466-3927 / 8291**
FAX : 02)497-3927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317-11(대진빌딩 3층)